

TAPE 1 윤종구, 박영민, 조대수 인터뷰

- 0000 윤종구, 박영민, 조대수 인터뷰 밤에 애기도 하고 그럴려고 그러는데 불쑥불쑥 드어오면 입장이 난처해질까봐
0014 (술 권하고)
0047 종구) 술 마신거냐? 필) 예, 마셨습니다. 종구) 얼마신거 같은데.
0118 종구) 우리는 증명사진이 조금 더 잘 나오니까 나하고 자릴 바꾸자. 아니다. 농담으로 한 소리야.
0136 영민) 제가 25센트를 나한테 20원에 팔았어 고스톱 친다고
0202 대수) 처음에 돼지고고 같이 있었다고
0212 (종구형 담배피우는 것)
0251 종구) 오늘은 몇시까지 들어가는 거야 영민 나는 뭐 시간 없어요. 종구) 시간이 없다고? 영민) 자면 되니까?
종구) 지금 숙소가 어딘데 영민 사무실에서 잔다니까 개새끼가 짓는다구.
0418 종구) 어떻게 우리끼리 텐트치고 이런데 없을까 영민 있지 밖으로 나가면 조그만 공원있거든 밖에서 보면 안보여, 바로 요기. 밤에 오는 사람도 없고, 안에다 쳐 놓으면 밖에서 절대 안보여,
0506 종구) 파출소하고 담당하는 건 내가 책임을 질게, 경찰들 맨날 나온다고 그건 내가 선수아니야, 어디가나 그런 건 잘 하잖아, 미리 사정애기를 하고 우리 취직 금방된다. 한달이 걸지 취직이 사실 금방 되는건 아니잖아, 공무원한테 얘기하는 거야? 하하!
영민) 핸드폰 켜봐, 한겨레 신문사 옥상빌려준다고 그랬거든
0613 종구) 한겨레 신문사 꼬지 들어갔다가 친구를 만났거든, 사회부 기자, 얼마나 망신이야
0634 영민) 홈리스는 사기꾼이요, 영민) 나 그 새끼들은 사기꾼이라고 봐, 참여연대는 좀 낫지, 심철호가 하는데가 사랑의 전화거든, 참여연대는 상당히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 사람들은 차라리 괜찮다고
0710 영민) 홈리스 수첩 알아요, 사기꾼이라니까요.
종구) 심철호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이고, 참여연대나 이 친구는 더불어, 살자고 하는 일이고 거기와는(심철호)차이가 있지. 심철호는 사기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참여연대는 사기꾼이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
0811 여기 노숙자들이 먹는 문제에 대해 약간 부실하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있어 그것도 고마운 건데
영민) 부실한 걸 떠나서 그 새끼 인간적으로 사기를 친다니까
종구) 심철호가 다음에 국회에 진출하려고 하는 거지.
0857 종구) 축구얘기- 그 사람이 정말 실직 노숙자를 위해서나 국회에 나갈려는 거야 영민 양념(육)이 들어가야 얘기가 재미있어요
0925 종구) 영민 심철호 얘기, 정치 얘기(국회얘기)
1043 영민) 나는 지금도 여기서 주는 밥을 안 먹어요, 내가 아주 여기서 한이 맺힌게 있어가지구 이위에 있는 놈들 다 때려 죽이고 싶어 농담아니야 나 얼마나 열받았는데 천주교 수사가 나를 살려준 거야 나중에 얘기해라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구
1126 종구) (심철호 얘기) 수해 봉사활동을 가자고 그래, 꼬지를 하느라고 사기를 많이 쳤어, 하루라도 나가서 봉사를 해보자, 무급이다 얘기 듣고 갔어, 구청의 직원이 뭐하러 왔냐는 거야 담요만 털다 왔다니까, 내수 필요없다고 가라고 지랄지랄 하더라니까
1332 종구) 거기까지 좋았어 열심히 털었다고 개고, 쌓고 소독약 뿌려가지고 딱 간판에 펴 걸었나면
"실직노숙자 자원 봉사단"대평간판을 걸은거야 프랭카드를, 점심먹을 때 보니까 일할 맛이 딱 떨어지는 거야, 봉사라는거 조용히 하고 가면 되는 거 아냐, 성경에서도 오른팔이 하는 일을 모르게 하라는 거 아니야, 진짜 어려우면 우리도 어려움 당해본 사람들이니까 조용히 도와주고 가면 되는 거야 거기가 간판 걸어놓고
1433 사진찍기 바쁜거야 사진 다 찍으니까 일 안해도 좋으니까 5시 30분 넘으니까 일안해도 좋으니까 집합하라는거야
1448 (심철호 아들에게) 심철호 아들이 분명한 거 같지 진두지휘를 하더라고 BI잡지
1524 프랭카드를 딱 걸길래 내가 자 우리가자 봉사라는 건 정말 조용하게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하고 왔을 때가 봉사지 사적적이고 실직노숙자라고 그랬을 때는 진짜 거지 새끼라는 얘기밖에 안 나온다
1552 우린 적십자 나갔다 들어오니 뭐라고 하는게 아니라 거기다가 자기네 장마통에 안 입는거 이만큼 걸어놓고 제대로 세탁도 안된거 아무나 가져가십쇼 써 붙여 놔뒀다고 우리를 향해서 하는 얘기가 가서 옷을 고르길래 야 두수가 고르지 말자 없으면 달랠 때 많으니까 고르지 말자 진짜 자존심 상한다 옷을 뒤진거야
1734 사기꾼이 될려면 더 제대로 된 사기꾼이 돼야 되는데 길거리의이런 사람들 이용해 가지고 뭘 얻어먹을게 있다고 아주 가진 사람한테 가서 사기칠 능력이 돼야지 우리 같은 사람 진짜 없는 사람 사기쳐가지고 뭘 얻어내려고
1845 영민) 간다는 자체가 틀렸어
1907 종구) 내가 아까 그랬잖아 내가 꼬질 많이 해가지고 하루라고 남을 위해 보자 의기가 투합이 돼서 간거야
1924 영민) 서울역에서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갔네
1934 종구) 빈손으로 올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죄를 많이 졌으니까 고지를 하면서 남한테 거짓말을 많이 했으니까 하루라고 남을 위해서 일을 해보자 우리는 하루라도 열심히 해보자 신나게 열심히 일했다고 그랬더니 프랭카드 걸고 나니까 일하기가 싫어지더라고 오죽했으면 이 동생이 가자고 그러는데 이 동생보고 한시간 반 남았다고
2052 종구) 신문을 만들겠다고 하고 좋게 말하면 교만이라고 했어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칠게 표현했으면 먹물들 무식티낸다고 그렇게 얘기 했을 거야
2115 종구) 어저께 누가 신문내려 왔어 돈은 얼마 안들어
2125 영민) 독지가 하나 잡아가지고 우리가 만들자 "서소문의 하루"이렇게 해 가지고
2131 영민) 우리가 만들어야 돼
2133 종구) 그렇지 그게 취재가 우리라는 거야
2211 종구) 술이거 다 되면 그만하자 더 먹고 싶으면 다하고 나눠 먹자

2238 영민) 개들이 누군데 어디서 왔다는 거야

2242 종구) 어저께 나도 몰랐어 수돗물 에 화장실 갔다오니까 안경을 쓴 걸 딱보니까 처음 본 것 같애 얘기하는거
가만히 딱 들어보니까 먹물이야 책상 물림이더라고

2336 얘기하는 소릴 들어보니까 실직 노숙자 신문을 만들겠다고 그러대요 9월 며칠날 나옴데 얘기가 그렇게 해서
시작된거야

2346 돼지가 이런 소릴 하더라고 나는 그전에 얘기는 모르니까

2400 이런 자리에 왔으며는 나는 어디 소속이고 자기 신분을 먼저 밝히고 얘기하는게 정상이 아니냐 자기네가 부
친 예수사할회인가 거기서 왔더라고

2430 하나 여자가 있다가 왜 아저시만 많이 얘기 하나 딴 사람 돌아가며 얘기해라 그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 애
길 듣고 싶었던 거야

2444 다 애길 안해 난 노코멘트 그랬지 맨 나중에 애길하겠다

2453 영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네 교회 화보에만 내겠다 그거 아냐 종구 교회화보가 아니라 실직 노숙자 신
문을 내겠다는거 달려든 사람들이래 영민 팔아먹으려고 하는건 아닌거 아냐

2512 내수) 교회단체가 아니라 후원을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어려움들을 알려야 돼 겠다. 그러면 나
아지지 않겠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하게 어디 명분은 없더라고 후 원금 좀 받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
게 제대로 될는지 모르겠더라고

2603 영민) 솔직히 고백을 하나할게 남석교회라면 앞에 사진 찍은거 있잖아 앞면 뒷면 다 찍혔어 앞면은 성경책
보는걸 찍어놨더라고 뒷면도 그렇고 열반을 정도는 아니야 얼굴도 확실히 안 나오고 지금 이 옷을 입고 있었
어 지금 그대로 이걸 입고 있었네 나는 알잖아 나는 보면 다 아는거 판데 돌리진 않거든 많은 친구들이 거기
신세를 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간거지. 서소문에서 내가 제일 민감한 놈이야 카메라 들이 되면 공원에
서 일할 때 장관 하고 악수하래 카메라 들이대면서 악수도 안하고 인터뷰도 안하고 계속 피하다가 KBS가
개기고 있는거야 이제 그만 좀 찍어라 얼굴을 안 보이고 찍는것도 한도가 있는거야 00친구는 장관하고 악수
하는거 까지 다 나왔어 그사람 집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 내가 그거라니까 장관 올때도 안 그랬는데 남성
교회 찍혀 있을 때는 밖으로 안 나가는 거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신세를 지고 있으니까

2808 종구) 서울역에 내 나이빨 되는 사람 하나가 밥을 타 먹다가 카메라에 찍혔어요 뉴스에 방영이 됐는데 집에
도 못오게 한다고 사진이 찍혀서 그대로 나가면 찍고 안 찍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밥을 주는 사람
이 어느 정도 인정을 했으니까 찍게 했을 거라고

2908 영민) 아니지 용산역은 한번도 안 갔어 내가 용산에서 20여년 살았는데 아는 사람이 무지 많아 역전이나 가
락동으로 옮겼지만 전자상가 시장이었다고 그때부터 살았던 말야 용산역은 철도회관 이런데서 찍으면 아무도
몰라 농담아니야 사방에서 찍을 수 있는데가 용산이야

2943 종구) 그게 내가 그걸 연관을 시키냐면 그 여자가 4-5번 토크쇼에 나왔거든 그 여자가 전도사가 아닌가 난
몰라 밥주는 행렬을 찍어는 것을 대담프로에 화면을 보여주겠습니다 하고 보여준거야 그렇다면은 그 여자가
토크쇼에 나왔을 때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인정한거 아니겠어

3036 영민) 방송매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자고, 동아일보가 어딘가 문화일본가 손문손(손대인)인가 뭔가 어
딘가 동아일보야 먼저 한 번 찍어가지고 난리친 새끼 그 새끼 누가 찍으라고 했어 아니야 저 혼자 숨어서 다 찍은
거야

3100 (설전) 종구) 신문사니까 한 컷이 필요한거지만 영민 형은 한컷이 아니지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한 컷이 아니
구 종구) 나도 그 신문 봤어요 동아일보 기자가

3117 영민) 신문이 아니고 방송에서 한시간 반인가 개가 계속 찍은거 나왔어요

3134 종구) 그건 못 봤고 신문을 봤는데 일주일동안을 서울역에서 노숙자와 똑같이 생활을 했대요 같이 밥 얻어먹
고

3144 영민) 그걸 믿냐는 거지 그걸 똑같이 했겠어요 밥쳐 먹음데 저기가서 쳐먹고 그러니까 그게 뺑이고 신문이
문제가 아니고 텔레비전에서 1시간 20분동안 밤 늦게 그게 3시간짜리가 그럴거야 그러니까 모른단니까 제목
은 잘 모르겠는데 실직자들 이래도 되는가 뭐 이런 식으로 내뱉을 했어요 내수)사건과 사람들인가 필)설업인가 영
민)제목은 모르는데 3시간 정도 했단니까요 서울역에서 우리 다 봤잖아요 그거 보고 뭐 저런 새끼가 다 있냐 이거
야 교회가면서 찰찰이 하면 돈 주는거 있잖아 그것까지 다 찍었다니까요 뛰어가는거 다 찍었다니까 필 물
래 찍은 겁니까? 영민)몰래 찍은거지 알게 찍었으면 나를 그렇게 찍었다 그러면 난 죽여 예를 들어서내 얼굴이
텔레비전 나왔다 나는 그냥 고발해 버려 명예훼손으로 난 비록 거지지만 난 고발해 버려 초상 권 침해로 거
길 다 찍어놨더라고 뭐 그런 새끼가 다 있어 그건 우릴 도와주는게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 소주 몇백병이 날
라가 물론 날라가겠지 솔직히 그러나 그 자식이 우리 소주 한번 사준적 있 어 아니야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렇게 내보낸다는 거야

용산 문제도 마찬 가지야 그 새끼들이 사방에서 찍을 때가 많다고요 용산은 나는 그 전도사 딱 한번 봤어
저기가서 본게 아니고 텔레비전에 한번 나왔더라고 이경균가 양심 냉장고 선한 사람 연결하는거 쪼래기 청소
하고 내가 그 사람 얼굴 딱 한번 봤다고 그런 사람들이 솔직히 뒤통수 쳐서 사직적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애
나는

3452 종구) 얘기 주제가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분명히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영민)용산역에 찍을 때가 많단니까 그
여자가 맨 처음에 용산역에 내가 밥 먹으러 많이 갔었는데 “가만 있어요 식사나 하시면 돼요” 싸움이 붙었어 천
막 땅에 깔아놓고 몰래 카메라를 제일 처음 봤어요. 그여자한테 가서 “저리 치워줄 수 없겠느냐 만약 나라면
집에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어디예요 “저깁니다 치워주십쇼” 그 여자가 남자가 밥 먹을 때 새치기 하면
“어떤 시발놈이야” 달려드는 여자예요 난 합작을 했는가 아닌가 알아보려고 그 여자가 한마디 하니까 그냥
걸어가지고 가더라고 바로 그 건물 2층으로 올라가더라고 우리 올라가보자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냥 밥이나
한끼 먹고 가요 내가 치울게 찍히는거 겁나냐 왜 그런데 신경스나 줄서가지고 구불구불 한게 그대로 나온거
야

3759 영민) 방송은 처음엔 거창하게 나오지 따지고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니

까 잔뜩만들어서 서소문신문해서 신문팔아서 우리가 돈한번 모아보자 이거야 난장 친 놈들 죄다 텐트하나 노
놔주자 그렇게 해보자

3940 종구) 희망사항이고 영민 (침벨고) 희망사항은 아니야 종구 가능한 일부터 하는거 순서 아니겠어

3907 신문을 만들어 팔아서 텐트를 사주는거 보다는 현실적으로 닥쳐있는 일부터 풀어나가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아

3923 영민) 어차피 여기서 가능한 일은 없수, 종구) 왜 없어

3928 영민) 여기서 가능한 일은 정말 없어

3937 종구) (침벨고) 나는 눈에 보이는데 왜 없다고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언제 한번 술을 마시면서 진취적으로 토
론을 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술마시고 스트레스 풀고 그건 쪽 있었 지

4007 영민) 우리가 다른 놈들하고 술 먹으면서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수 종구) 안나오지 영민) 더 이상 할진 없다
는거지 내 얘기도 말이였을 뿐이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구

4033 종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 뿐이다 하는거지 단 놈들이 신문을 만드느니 차라리 우리가 만들자는 거
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가슴아픈데(침묵.....)

4137 종구) 금방 얘기 했듯이 신문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돼야 돼요 편집회의를 한 다든가 기획회의
를 한 다든가 독자적으로, 우리식구가 셋이다 우리는 셋이서 토론해서 쓰는 것 보다는 더 합리적이고 그 사람
들이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 그런거거든 내가 보인다는 것은 그런 쪽이 보인다는
것이고

4246 영민) 내가 아까 텐트를 다 사주자 했는데 그 말 뜻은 알아 정말로 벼룩시장이나 한겨레 리빙 같은데서 글을
모아 오면 실어주겠고 몇 장정도 글을 모으면 실어주겠소, 몇 장정도 글을 모아오면 실어주겠소, 몇장정도 글
을 모으면 해 주겠다고 하면 나는 글을 모아 놓달아나 정말로 하겠어 여기 솔직히 배운 사람도 많아 시를 쓴
다든가 생활수기를 쓴다든가 하면 글만 모아서 해준다면 나는 모으겠어 돌아다니면 내가 이 얘기를 하고 돌
아다니면 그런 글 써줄 사람들 있어 팔아서 어찌겠다는 것은 허황된 얘기고 기회를 준다면 글은 내가 모을
수 있어 객지 생활을 많이 하다보니까 저건 먹물, 책을 많이 읽어서 글을 쓸 수 있다 그걸 알아 어찌해도 책
보니까 자꾸 놀리잖아 최소한 소설책이라도 봐 가지고 무슨말을 논리적으로 하는거 그거를 배우느라고 책도
보고 그동안 돌아다니느라고 책을 못 봤어요 어제 하루에 보겠다고 해서 봤어요 다 봤지만은 놀리는 거야
내가 볼 때 그 정도는 써줄수 있다는것을 알아

4606 종구) 얘기가 많이 진전이 된 것 같으니까 악수 한번하고 악수하는 의미는 셋이서 우리 지면을 할애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고 안되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노력해보자고

4635 종구) 실상을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우리 셋이서 노력해 보자고 제일 앞에서 깃발 끌고 가는 거야 조금 고
달프겠지만 우리 생활 해가면서 생활 수기 모집하는 거니까 셋이서 한번해보자고 없더라도 노력을 하는데까
지 해보자고 실직 노숙자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그렇게 해 보자고 영민 사람과 공간이 있으면
하자 사람이, 공간이 없다하더라도 최소한 노력을 해 보자고 우리가 그만큼 발버둥치고 있는데 술만 먹고 남
의 등 안치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다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라고 세사람 손잡고 해보자 (웃으면
서) 내가 명동성당에 가서 농성하는데 가자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 명동성당도 안 믿어요 실직 노숙자의
주체는 우리라고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고 다른거 생각하지 말고 한발 한발 속도는 느 리지만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진전하게 딸 자식한테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 하가지만 위해서만이라도 해볼만하다고 생각
해

4929 (한사람 일어선다, 비가 내리기 시작) 영민 빗속에 앉아서 생각한게 그것밖에 없구나 지면만 할애해 주면

종구) 지면 할애는 할 수 있어 영민) 벼룩시장에도 때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할 말은 많아 인터뷰도 하고
싶고 우리부도님 나와 관계된 사람 때문에 못하는 거야 내가 다음에 그 사람들 앞에 어떻게 나타나라고 나도
했으면 정말 여기 돈 몇 푼 받고 인터뷰한 사람 많아 하지만 난 그렇게 안해

5107 (우산쓰고) 돈 몇 푼이 문제가 아니지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데 종구비가 오니까(기침소리)

5117 영민) (기침) 정주영이 헛지랄해서 그래 우리가 망한 지경인데 북한에 소를 노략취 헛지랄하니까 비나 때리는
겨 종구) 정치얘기는 가능한한 하지 말고 영민정치가 아니야

5140 (기침 종구) 나는 잘 갖다 주었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영민 여기서 소한마리만 잡아봐 얼마나 잘 먹나 뭐야
소 갖다주니까 잠수함내려 보내잖아 또 간다고 현대 시끼들 (기침멈춤)

5214 종구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골자는 가능하면은 아까 우리 손 잡고 했던 얘기 한번 해보 자고 여기 있는 동
안은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고 직장을 구해서 나가면 자기 직장가족에 충실해야겠지만 정이 있어서 만나는 사
람인지 않겠냐고 우리가 소식지도 만들고 아까 의견제시 잘 했어요 내가 했으면 저거 또 먹물 아닌가 해서 싶
어서 말 못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서툰 사람이 만드는 것보다우리가 만드는게 낫다는 거잖아 그런 얘기
가 제대로 알려지면 좋겠다고지하면서도 비참할 때 많아 그럴 때 순간순간 느낌을 잠깐 메모했다가 그런거
만들어보자 안팔리면 다행이고 안팔려야 우리 사회가 좋은 사회라 생각하니까

5438 종구형 필에게) 추위에 찬물로 목욕할 수 있겠냐 너혼자 사우나 가면 죽이는 거야 쌀 갖고 김치갖고 오면 죽
이는 거구 그만하자

5500 (일어서며) 종구 울적하기도 하고 막 그래

(걸어간다 빌딩 보이고)

5520 (소변보는 소리) (걸어가며)

5535 종구형실직한지가 일년됐지 두수가 사라졌다고 찾으러 간다고 (한 사람이 가고)

5652 (걸어가며) 종구 다큐를 찍는사람이 아니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사람 찾으러 가면 빼고 갈 수도 있다

5757 (기차 소리가 크게 들려옴) 종구 먹물하고 실직 노숙하는 사람하고 심리적 괴리감이 굉장히 깊고도 넓다는거
그걸 극복해야 제대로 된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인간관계라는 것이 뛰우고 이웃사촌이라잖아 여기있는 사람이
피해의식에 굉장히 많이 젖었거든 카메라 무조건 싫어하고 알려지는거 싫어하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에 문제
제기 하는 사람이 없다고 왜 알려지게 싫은지 문제제기 하는 사람이 없다고 집 식구가 보면 싫어한다는
거지만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느냐 하느냐에 대해 밝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수시로 얘기하는 것이 그
사람도(내수형) 자영업하던 사람이야

10020 종구 곧 추석이다 여기서 명절을 맞이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남을 등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기차 소리)입이 가볍고 좋게 말하면 생각이 단순하고 노숙자의 글을 쓰면 한 줄이라도 쓰는 걸 싫어해요 정부를 뒤엎는다느게 왕권을 뒤엎는거잖아 제대로 된 교육을 안 받는거잖아 밥 안준다고 정부를 뒤엎을 정도면 이 정부가 그렇게 취약한 정부가 아니거든

0000 윤종구 인터뷰 계속) 어둠 그것보다는 그럴 용기도 없다고 죽을 가능성 용기도 없는거야 그러니까 절망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그걸 어떻게든 몇 사람이라도 모여 가지고 이것을 무조건 절망만 할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찍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사니까 진보적이고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절망적인 사람을 찍돼 그 사람들이 죽을 용기도 없는 사람들 이라는거 나 역시도 마찬가지로 나도 그 속에 일원이야 죽기가 그렇게 쉬운게 아니라고 그래서 여기서 매일 느느니 소주고 담배고 앉아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이 진보적인 생각이나 옳은 생각 보다는 이거 살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많이 하는거고 그나마 그것도 안하는 사람은 마시고 퍼져 자니까 앞으로 우리는 그런 얘기를 담자구 그런 얘기 그 사람 얘기 술 취한 얘기 생생하게 그대로 담아가지고 그 것이 우리 사회 현실이 이렇다

0223 제일 중요한게 우리한테 어떻게 신뢰를 쌓아간다는게 정말 이 사람이 우리 식구라는 얘기 들었잖아 우리식구라는 판단이 가도록 행동을 해야된다고 어저께 김치쌀 그런거 하지 말라고 절대로 나는 중국에 붉은 별을 읽으면서 또 닥터 노먼페슨이 읽어봐 그거 보면 캐나다인 의사야 스페인 내전에 끼어들었다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서서 페슨 국제병원까지 세운 사람이야 내가 작년까지 직장을 갖고 있었어요 목수라는 직업이라는게 남들이 보면 일당을 많이 받는다고 하지만 1년이면 6개월밖에 일을 못해 장마 겨울철(1-3월)은 일을 못해 4개월동안 이동하는 시간 일주일 간혹 비오지 데마찌(일 못하는 날) 무급 휴일 4개월을 쉬었잖아 그러면 그의 6개월은 일을 못해요 0530내가 목수로 일할 때 작년까지 십만원자리 일당쟁이었다구.0536 십만원씩 받았다 나 상당히 재능있다고 인정 받았었다고 한번 분산을 해보자구 12개월인데 6개월밖에 못 받았다고 하면 10만원 받으니까 하루에 5만원 받았네 150만원 받았네 내가 딸 애가 둘이야 내가 4인 가족이라고 4인 가족만 사느냐면 우리집이 팔남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카톨릭 집안이지만 제사를 지낸다고 그러면 여기저기 짓어줄 때도 있고 경비가 나갈 때도 있고 항상 쪼들려 한달에 150만원에 왜 못사느냐고 하지만 채수한 딸과 고등학교 다니는 딸 마누라하고 나하고 5만원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느냐고 (교육비)가)제일 많이 들어가지 나는 한푼도 안 건드렸을 때가 그 액수야 담배로 그대로 갔을 때 담배도 피워야 되고 대인 관계하면 소주도 마시고 한잔 얻어마시면 한잔 사야 돼고 내쪽에서 쓰는 경비도 가장으로써 20-30만원 안 돼겠어 하루에 최소한 5천원은 쓴다고 봐야지 우리 노가다식이 오천원이야 사무직이야 5천원 가지고 돼겠어

0825 우리 입장 없는 입장을 얘기하는 거야 아주 절박한 입장을 나머지 돈 100만원을 가지고 0833딸 둘 채수시키고 하나는 채수시키고 하나는 고등학교 다니고 맨날 가정불화 일어난다고0844

0845 그런데 그 돈 가지고도 가정 불화가 일어나는데 실질을 해 가지고 한 6개월 집에 돈을 못 갖다주니까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그래도 그나마 이 악물고 버텨가지고 직장이라도 있다고 했을 때는 적금이라도 들고 그랬었어 그리고 아빠가 내가 제일 가슴 아파하는 것이 뭐냐면 "아빠가 회사갔다" 이 소리 듣는거하고 "요기 잠깐 불일 보러 갔다" 이 소리 엄마가 뭐라고 그러겠어 어디갔느냐 그러면 딸애가 물어봤을 때 "회사 갔다" 소리하고 "불일 보러 갔다" 했을 때는 거짓말 하기가 힘들니까 그 사람도 불일 보러 갔다고 하는 거라고 하는거라고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는 정말 힘든 거야

0954 단지 노숙하는 사람이 돈을 못벌어다 줘서 노숙하는 것이 아니라

1004 정신적인 고통을 못 이기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다 나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다 그리고 여기 생활에 와서 컸으면 컸을수록 많이 있겠다. 컸는 방법도 여러 가지 겠지만 쉽게 먹고 밥을 주니까 경실련에서 밥을 주지 말라는 말을 했겠지 우선 하나는 알고 들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고 여기와서 우리와 같이 웃고 놀고 그러자고

1056 (비밀로)이 절박한 심정을 누구에게 질문을 해야지

1117 기침시작

1131 나 감기가 감기 감기가 되게 많이 걸렸어 정말 가슴에 쌓인 한이 많을 때 자기는 어떻게 풀어

1204 나는 정말 스트레스 쌓이면 옆에 있는 사람 애길해요 내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뭐든지 애길 해야 돼요

1228 비소리 됐어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성경교리도 보고 목사들한테 거짓말 하기 위해 성경을 읽어봐야 했어요 그거 읽고 절에서 스님들한테 돈 얻기 위해서 반야바라심경을 반쯤은 읽었다니까 색즉시공 즉색시공 하면서 그렇게 외우고 가서 거짓말을 했단니까 내가 가장 나쁜 놈이죠 알면서 거짓말 했으니까 알면서 거짓말하면 나쁜 사람이야 인정하는데 우선 당장 취직이 안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내 생을 유지해야 (거친 비소리)내가 내 생을 유지해야

1402 들어갈까요

1417 불법을 외우고 교회에서 돈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구절을 외우고 다녔어요 사실이에요

1445 요기서 커트

1445세실연의 서울역집회 두 청년(준비) 테이프 붙이기(조끼 등 뒤에 새날을 여는 실업자 연맹)

1457 사진 걸기

1509 사진 클로즈업 CU→ZO,TU 사진밀 글씨 "대통령도 정부도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실업 노숙자들도 인생이 있다 꿈이 있는데"

1518 다시 거리 사진전으로 카메라

1527 다시 사진 걸기 두 청년

1537 서울역 설정샷 2개 의자 옮기고 PAN 사람들 지나가고 준비하는 모습

설정SHOT

1602 사진 부착

1609 갑자기 버팀목이 부서짐

1620 조끼 클로즈업 "새날을 여는 실업자 연맹"

1644 세실연 깃발 TD 윤여현 MS

1657 앉아서 준비하는 상황, 학생4-5명

1705 조끼입고 전단 준비하는 아저씨

1713 전단CU "400만 실업자, 노동자가 봉인가"

1718 대자보를 지켜보는 사람들

1723 다시 사진전 pan지나가며 쳐다보는 아저씨
쳐다보는 할아버지

1742 할아버지 걸어가며 대답 안함(인터뷰시도했으나 실패)

1756 FS) 사진전을 관심있게 바라보는 사람들

1804 담배피며 사무직 남자 인터뷰

1818 윗놈들이 나쁜 놈이지 더 이상 할말이 있겠어요

1837 어떤면에서는 상황자체는 윗사람이 만든거지만 그 상황에 안주하고 포기하고 다들 정신차리고 잘해야 될텐데

1920 여자 1 인터뷰 회사있다가 IMF시대다 보니까 일자리 못 찾고 걸으러만 말하고 많은 관심은 없는 거 같아요

1938 플랭카드 걸기 FS→ZI MS

1947 플랭카드→PAN →청년 MS

1955 플랭카드 CU 제 1차 노동자 실업자 투쟁 결의대회

2006 중년남자 인터뷰

2015 물론 일거리가 없기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거 아닙니까 저도 역시 일거리가 없으니까 할일없이 방황하고

2037 게으르다고 일하려고 찾아도 일자리가 없어요 나도 건축하던 사람인데 중지하고 쓰질 않아요

2100 전시회 사진 CU 1. "누가 우릴 노숙자로 만들었는가"

2. "대통령도 정부도 해도해도 너무하다 실업 노숙자들도 인생이 있고 꿈이 있는데"

2126 사진2, ECU

2135 FS 실업자 가입 서명 받는 책상

2150 실업자 조끼 CU "새날을 여는 실업자 연맹"

2156 FS 거리에서 전단 나눠주는 모습

2238 남자 인터뷰 3, 40대 전반

2244 살수가 없잖아요 직장도 없고 식생활이 해결안되니까 나와서 있는거 아니요 답답하네요

2307 조끼입는 아저씨

2315 다시 전단 나눠주기

2338 남자 인터뷰4, 50대 초반

어쨌든 정치구조가 잘못돼서 정경유착을 통해서 비리가 만연했고 대기업이 무너지면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노
숙자들은 정치권과 재벌의 문제다 우리가 낸 세금은 재벌에게 났는데 한보 같은데가 무너지면서 그것도 모자
라서 외국자본도 거기다 투자를 했는데 너무나 방대해진 기업들이 건디다 못해 쓰러지고 너무나 경쟁시대를
부추겼지 않는다 모두의 책임이라 하겠지만 가깝게는 정치권의 책임이고 재벌의 책임이다

2526 전단 나누어주는 아저씨

2530 60대 아줌마 인터뷰 2

글쎄 보기는 좀 너무 딱한데 자기가 자포자기를 하지 말고 자기가 그 전 생활 보다도 더 낮은 생활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려고 애를 쓰며는 좀 실체를 면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자포하고 내
가 옛날엔 뭘 했는데 내가 지금 이걸 할 수 없다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시대에 맞추어서 지금 환경은 이런
시대니까 좀 나도 옛날 좋은 자리 앉아서 좋게 살던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아이엠에프 시대니까 누군든지 고
생을 하고 해야 되는까 옛날보다 못한 더 못한 직업이라도 더 고생스럽고 더 험한 길이라도 해쳐나갈 아이엠
에프가 해결될 때 까지는 자기 힘으로 개척을 해 나갈 용기를 가지고 모든지 하려고 애를 쓰면 낫지 않을까
싶어요 무작정 자기가 자포자기하고 한끼라는 먹고 살 수 있다 하고는 자포자기하고 의존하는 마음을 버렸으
면 좋겠어요

2638 질문) 그러니까 게으르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예 그렇죠

2640 내가 보기에는 참 할 수 없이 나이 잡히고 할 수 없는 환경에 있어서 노동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얻어먹는 사람은 딱해서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지만 젊고 아직까지 패기가 있어 가지고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눈에 띄는거 같애 그런 사람들은 마음을 바꿔가지고 내가 나라에 의지 하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새
마음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는데 자기 운명적으로 덕을 쌓고 내가 살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2717 일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일자리가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
니다 자기 할 수 있는 한은 자기 할 수 있는거 내가 어떻게든지 이긴 할 수 있었다 내가 옛날에는 이거 아니
라도 좋은 일을 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IMF니까 나보다 저기한 사람도 있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도 더 많아요
또 찾을 수도 있어요 몸도 건강하고 나이도 있으니까 할수있는거 있는가 없는가 찾아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2750 서울역 조부장이 끼어들) 아줌마 내가 할 얘기 있어 어저께 60명이 일 갔는데 용역돈 받아가지고 오야지가
다 도망가 아줌마는 집에서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그래 젊은 사람들 엇그제 골프장 일가지고 용역에서 돈 받
아가지고 60명이 돈 못 받고 그래 3만 5천원짜리 일 가가지고 지금 일이 있어도 하루치는 일당을 받을 지 몰라도
일주일 한달 넘는 거는 중간 오야지들이 다 도망가 그러니까 아줌마는 여기있는 사람 비판하지 말란 말이야

2821 비판하는게 아니고 힘을 용기를 가지고

2825 모르면은 아줌만 모르면 집에 가서 밥이나 저 다 물어봐 돈 못 받아가지고 난린데 아니 건강한 사람들은 일
해야 되는데 아줌머니는 안 하니까 그런 식으로 애길 하는데 용기고 뭐고 지하도 가서 밥 먹는 꼴을 봐 아줌
마 말로만 하지 말고 빵 한 쪽이라도 갖고 왔어?

2850 아줌마가 빵이라도 가지고 왔느냐고 빵이나 하나 가지고 왔느냐고 가가지고 신도들한테 가서 현금이나 많이
달라 그래

2859 다른 아저씨도 끼어들다

2902 실정을 모르면 애길 하지만그 중에는 아줌마 말 마따나 일 안 가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2913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은 도와줘야죠 지금 일을 가도 도와 달라는데 아니야

2922 예) 옛날 생각 하지 말고 지금 시대 맞춰서 할수 있는건 찾아가지고 해야 된다 이말이지요 옛날 부터 놀던 사

람들이 IMF가 기회다 하고 그러는 사람도 더러는 있다 이거예요 이게 기회다 의지를 하면 안 되고

2946 아줌마와 실전을 벌이던 조부장 인터뷰

2952 쉽게 말해서 하는 얘기가 건강한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된다는거 아니야 지금 일을 가 지금 돈 때 먹는 사람이 무척 많아 예를 들어 서울역을 짓는다면 하청을 주잖아 하청 오야지들이 군청에서 받아가지고 일 하는 사람들 돈을 줘야 되는데 그 임금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린단니까 엇그저께도 수해 나가지고 골프장 일을 많이 갔다고 60여 명이 돈을 못 봤고 난리야 35000원씩이야 거짓말인가 봐봐요 여기 나와있는 애들

3045 서울역 심부장이라고 다 알아요 여기 나와있는 사람들 다 알아요 내가 홈리스 축구단 팀장이야 홈리스 축구단 나는 장애자야 장애자 허리에 석박고 장애자라고 그래도 일다니고 공공 취로 사업 나가서 껌 띠고 이 지랄하고 있어

3123 젊은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일거리가 있는데도 빈둥빈둥 논다 이거 아니야 쉽게 말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하루에도 용역 가가지고 일을 간다는 사람이 무척 많아 가면 돈을 못 받는 다니까

3134 질문) 신문보며는 게으르고 일거리가 있는데도 안한다하는 얘기가 있는데 조부장)그렇지 내가 그런 사람이 없다고는 얘기를 안해 그런 사람은 쉽게 말해서 꼬지 앵벌이 옛날부터 그런 사람들이고 극소수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3150 지금 현재 일을 가며는 돈을 받는데 문제가 하루 갖다와가지고 하루 아침 저녁먹고 잠잘려고 그러면 원 상태란 말이에요 3만원 일가면 여인숙에서 잘려면 돈 만원 줘야지 아침 저녁 사먹어야지 남는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일 다니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장기일을 다녀야지 목돈이 잡히는데 중간에 오야지 들이 중간에 그 돈 가지고 도망가는 거야 골프장 일갔던 60명이 돈 못 받고 있어

3226 그런걸 알고 떠돌아가지 왜 할일없이 앉아있느냐 그러는데 2단계 공급 취로 사업도 내가 주소지를 남대문 5가로 해줬는데 내가 지방인데 노숙자를 일을 해줘야 하는데 지역 사람들 다 해줬다고

3328 나도 배식하고 설겜이까지 해줘요 지나가던 사람들 다 안다고 내가 7천원짜리 일해서 하루에 28000원이야 남대문 시장 쪽방에서 잔다고 7천원짜리

3350 지나가다 보니까 아주머니가 그러잖아 젊은 사람들이 일 안하고 빈둥빈둥 논다고 일거리 안 찾아보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주머니가 너무 실정을 모르고 얘기하는거 아니야

3404 집회시작 “동정 싫다 일자리를 보장하라”큰 플래카드ZO

3413 어제 여러분 TV보셨습니까? 그저께 만도기계에 공권력이 들어가서폭력적으로 진압한 이후 그 다음날

3423 새실연 농성깃발---실업자문제는 누구도 해결못합니다.그것을 통해서 실질적 권력을 쟁취하고 누구도 길거리

3430 시위전체---로 쫓겨나지 않고 일할 권리와 다 같이 먹고살 평등한 세상이 문제해결책이다

3501 피켓-국민정부가 국민을 죽인다.

3520 떠두른 시위자

3528 구호 외치는 시위자들

3552

3559 사진 전 사진CU [남산공원의 계단길]

ZOOM OUT “나머지는 실업기금 낸다는데”

3610 다시 농성자들

3619 연설 깃발든 시위 요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악법을 철폐하자는 우리의 외침이 자본과 맞서는 자랑스런 모습

3646 고개숙인 농성자 중의 하나 “이제 세계자본을 물리칠 수 있는 아시아적 연대 ”

3651 고개들고 ZOOM OUT

구호 (피켓) [노동시간 단축하여 고용안정 쟁취하자]

3703 플래카드[노숙자들에게 생활자금을 지급하라] PAN 윤종구

3709 윤종구) 펜발로 났을 잃은 표정으로 “ 자주적인 우리의 힘이 결집했을 때 단결되고 투쟁력이 보장됐을 때 단결권과 쟁의권을 올바르게 행사할수 있는 노동자사회를 만드는 것이 민주화의 성취 노동자, 자본가가 공정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 ”

3741 노동자조끼 새날을 여는 실업자 연맹 노동자 모습 펜 인간 담게 살기위한 보장을 위해 최저바닥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3801 시위자 모습 클로즈업 민주노총의 강령과 전문을 보면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전부 있습니다 노동자의 연대뜻을 담은지지 성명서

3820 다른 새실연 시위자의 옆모습 착취해간 세월의 사유재산 벗어나지 못하면 초국적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3834 시위대에 노래 박수치며 노래 들음

3907 시위대 줌 아웃

어떤 장애인 노숙자의 인터뷰

3915 (노래소리) 진짜 필요한거는 화장실 24시간 개방하고 탄 건 없다고 여자들도 많은데 주부도 있는데 그걸 누가 책임져 진짜 필요한 건여기 필요한건 일용직은 아무것도 아니야 대기업자들은 퇴직금이라고 받겠지만 다 받은 사람들이 이제와서 노숙자 주장하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기본적인 거 24시간 화장실 개방해 주는 거 탄거 필요없어 노숙자 잠자는데 경찰 터치만 안해주면 술먹고 지랄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화장실 개방하고 경찰 왜만하면 혼내지 말라고 그거밖에 없어 솔직한 얘기로 형씨가 여자 같으면 어디가서 잘거야 그걸로 만족한다고 여기 여자들도 많다고 그걸 누가 책임져 만약 여기서 사건 낸다면 누가 책임져 그게 문제라고

4110 편글래스 권 50대 사투리 아저씨 인터뷰 부산에서 10년만에 서울 올라왔어요 정말 IMF라는 것이 빛이 많다는 것이 많다는 것이 돈을 꺾은다고 하는데 취지가 뭔지도 국민들은 대다수 잘 모른다고 찬 바람이 불고 추위가 오는데 노숙자들이 갈 곳이 없는데 어떻게 노숙하고 잠자야 하는지 부산의 역전에도 지하도에 노숙자들이 만항 있는데 이걸 큰 불행이고 한 마리 비둘기가 굶어죽고 얼어죽는다면 자연이 죽었지만 이렇게 한 인간이 굶어죽든 얼어죽

든 죽는다면 사회가 책임져야 돼 바로 이것이 내 개인 문제가 아니고 지역 국가 국민들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이 문제라는거 한 인간의 존엄성으로 볼때는 아픈 일이며 아픔이나 고통을 구제하는 것이 현 정부 책임이라 생각하면서 한 시민으로서 꼭 이말을 전하려 합니다 IMF라는 것도 TV나와서 짜맞추기식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그러는데 큰 잘못이고 소위 배운 학자들이 온실에 꽃처럼 아픔을 공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맞춤형으로 패러다임이 어찌고 저찌고 하는게 국민들 우롱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4329 시위대

4332 연설자 앞으로 연맹 동지를 모시고 실업자 투쟁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4343 연설자 연단에 박수

윤여현회장 연설

4346 술한잔 얼큰해지지 않으면 새벽 추위에 잠을 설치기 일쑤고 엄동설한 혹독한 추위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허우적되며 살아가야 합니까 실업노숙자라고 인생이 없고 꿈도 없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잘남 사람들만 땡땡거리고 살아가야 한다고 법에라도 식여있다면 미련이라도 버리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써있는데 실업자는 국민도 아닙니까 누구는 상감청자 이조백자 같은 인생을 살고 누구는 깨진 항아리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면 이래서 되겠습니까 선거때면 서민과 노동자를 위해서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4508 그러나 당선만 되면 입술에 침도 마르기전에 서민과 노동자를 봉으로 만들고 한숨과 눈물만 강요하는 개같은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4525 오예(환호)씨발놈의 세상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고 어느 실업자가 컴퓨터 통신에 올린 글을 보았습니다 정말 이지 좇같은 세상 지진이라도 나서 확 뒤집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실업자들의 공통적인 심정이 이럴 것입니다 사실 실업자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죄가 있다면 부모 잘못 만났고 악착같이 남을 짓밟지 못했고 알파하지 못했고 윤이 풀라게도 없었다는 죄밖에 더 있겠습니까, (박수)

4604 기득권층의 나뭇잎기형태로 나라가 거덜나지 않았다면 우리 실업자들이 이런 비참한 처지에 빠졌겠습니까? 그런데도 정부는 실업자들을 개밥의 도토리라고 알고 25000일당으로 공공근로사업을 벌이고 앞장서서 임금이나 노동 감독 강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7시까지 일해서 일당 3만원 주겠다는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일주일 일하면 15만원이 되고 한달 60만원인데 하루에 담배값 밥값 빼고 겨우 45만원인데 공공근로 사업기간 4개월을 모두 저축해도 200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그돈으로 겨울 일도 없는 엄동설한에 얼어죽지 말고 노숙하라는 소리지 노숙자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경찰서 방문하면 언제나 잡아먹어도 좋은 짐승처럼 여기면서 쌍스런 욕까지 합니다 골프장 일한다고 따라갔다가 중간 알선업자가 620만원을 갖고 날라버려서 일당을 받지 못하는데 정부가 진상을 조사해서 조치해 줘야 합니다

4808 우리 새날을 여는 실업자 연맹은 여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일당을 확실하게 인상하라 실업노숙자에게 대중교통수단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라 서울역에 이동 동사무소를 설치하여 주민증 말소자 분실자의 무료 재발급을 실시하라 무료 급식소를 증설하고 상설하라 만도기계를 쑥밭으로 만든 전경등 인권유린 기구를 해체하고 살수차 등을 매각하여 실업자금으로 써라 적격적 실권을 해라

4903 박수

4904 청중쪽으로 대통령으로부터 1억원만 남기고 실업기금으로 헌납 모든 실업자에게 차등없는 실업수당을 지급하라 노숙자에게 생활 정착금 지급 완전 고용 특별법을 제정하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4922 그러나 실업자의 유일한 민간단체인 새날련은 정부는 손해가 없는 합숙소 20일 제한 규정 철폐라든지 납입규정 철폐등 두가지만을 수용하면서 생색내려하고 있습니다

4956 정부는 이런 식으로 실업 노숙자를 한끼 밥으로 해결하겠다는 세월이나 벌어보겠다는 알파한 실업 대책을 각각 중지해야 합니다 좇같은 세상 지진이라도 나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안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5019 집회자들 박수

5030 지나가는 사람들 모여있는 사람들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당당히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앉아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앞에서 여러분의 결의문을 들어면서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신했구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다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한 때를 쓰는 것도 아니고 앉되는 것 해달라고 때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무료 급식 몇번 주고 머리 몇번 잘라주고 우리가 할 일 다했으니까 너희가 저지른 세상 너희가 만든 경제위기 너희가 다 책임져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투쟁을 했지만 정리해고를 하고 있으며 공통분담을 외치면서도 아직까지도 방바닥에 배를 누이고 있습니다

5129 어깨에 손 노래 소리 아침이들 얹고 호음 줌 아웃

5150 다시 노래 조끼 클로즈업

5207 박수 노래 끝

5220 실업자 연설) 너무 억울한 세월을 받고

예전엔 아름답게 살았습니다만 언제 어느때 누가 이렇게 됐는지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선것도 부끄럽지만 노래하면서 끝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훗날 아름답게 만납시다 그러나 그것이 안될 것 같아요 5년 10년도 갑니다 저런 건물짓고 도둑놈의 새끼들 우리 노동자들이 저런거 다 지었습니다 건방진 새끼들

5408 맞아요 안 맞아요 팔 들어봐요 우리 진짜 노래 멋지게 부르고 내려가겠습니다

5436 동정은 싫다 따라서 같이 해 동정은 싫다 일자리를 보장하라

5453 힘차게 해주신 동지 여러분께 힘차게 박수보내주시시오

5458 동정은 필요 없다 일자리를 보장하라 2번 고용안정 투쟁

5512 가슴에 문헌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말로 표현을 다 못하는데

5522 플랭카드 제 1회 노동자 실업자 투쟁 결의 대회

5525 모든 실업자에게 실질 생계비 지급하라

5529 사진 나도 한마디 란에 사연을 쓰고 있는 사람 [정리해고 대상은 정부, 국회 가진 놈들]

5542 나도 한마디 란에 [정부에서는 하루 빨리 대책 세워주기 바란다 노숙자 힘찬 집회와 거리행진을 했으면]

5551 당신이 사색하는 동안 우리는 진짜 사색되어 간다(나도 한마디) 집회 노래 시작
5603 팔들고 호응하는 <노래하는 사람들> 줌인
5625 얼굴 바스트 샷
5639 플랭카드 앞에 구호 외치는 사람들
5654 깃발
5701 다시 사람(주먹)
5708 휘날리는 깃발
5718 다시 사람
5728 노래끝
5830 [동정은 필요없다 일자리를 보장하라] 고용안정

TAPE 3

예광양노원 홍성훈 인터뷰. 원장사로 몰카 이사장과 대화하는 김상희
숙소에서 홍성훈, 김상희 인터뷰 떠나는 김상희 인터뷰

0000 부산 예광양노원(아침을 여는집으로 전화거는 홍성훈) 안에서 밖으로 ZI 들어가며 일상적으로 보면 보건복지
부에서 제가 하는 애길 믿겠습니까?

0017 유료 봉사원(홍성훈)이 전화기 들고 술먹고 와서 내가 패준것도 아니고 싸우다가 말리다가 그런 걸 싸우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0054 돌아서서 예에 전화부탁하구요 제가 잘못했는데 너무 억울한 거 같아 어디 얘기 할때도 없어 이리로 전화했
으니까

0127 전화 끊고 나가며 잘좀 얘기해 주세요

0136 홍성훈 인터뷰) 직원하고 주방일하는 사람하고 나이 먹은 양반하고 언성을 높이며 싸웠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사과하고 서로 없었던 걸로 하자고 좋게 얘기하고 끝났어요

0212 나는 말렸어요 이사장이 오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주방 아저씨하고 나하고는 싸움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나가래
요 지금 나가래요 싸운 사람은 나가라 그럴 수도 있어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 같이 말린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음성을 좀 높였어요, 양로원이라 할아버지 할머니 있으니까 음성 높이는게 안 좋지만 싸우는 도중에서
말리는데 사람이 목소리가 안 클수있어요 목소리가 크니까 자기 맘에 안드니까 무조건 나가라는 거예요 나는 억울
하다 내가 여기다 전화를 했어요 이 억울함을 거기다 전화 했으니까 나가래요 이렇게 하면돼지 않느냐니까 이사장
사모님이 어려우니까 사람이 6명까지 필요없으니까 나가라 이거래요

0343 우리를 내보낼려고 고꾸리를 잡은 거예요 우리 6명 다 그래요 여기와서 도움이 되면 도움됐지 잠자고 밥먹고
여기서 월급을 줘요 뭘을 줘니까 밥 세기 먹여주는 거예요 3만원씩 일당 받지만 여기서 하는 일이 3만원씩 일이 된
다고는 안봐요

0412 원장실 몰카

0829 원장사로 몰카) 얘기를 해보고 해야 한다고 그러면 일단 거기서 우리쪽에서 연락이 갈 때 까지 우선은일을
하면서 일당을 받게 해주고 채 배치를 하는게 어떻겠냐고 홍상훈씨가 주장하는 건

지금 당장 예광원에서 내일 당장 일을 하래도 못한다 이거야 여기서 막 떠들었기 때문에

0908 홍상훈씨가 노숙생활 한 얘기를 쭉 하면요 나는 신문으로는 예사로 받는데 아침에 밥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개때 같이 몰려서 밭히고 난리라네 아침밥 한 그릇 얻어 먹으려고 줄서서 받는데 아니고 그것도 늦게 가면 없다네
서로 받아먹으려고 우르르 가면 밭히고 넘어지고 (한숨) 아이고 참

1001 홍상훈씨 얘기를 자기를 일을 시켜보고 당신이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고 솔직하게 그런 얘기가 없었
냐 이거라 원장)그거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다 당신들 안 고치면 사회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1030 여) 홍성훈씨에게도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까 일을 찾아서 좀 적극적으로 하라고

남)했지, 일주일전에 전부터 모아 놓고 두번상담을 했다고

1046 저 사람들은 몰 보라고 몰 일을 안 맡겨주고 왜 그랬어요 내가 뭐랍디까 저 사람들은 일거리가 없으면 안 되
니까 몰 보는 일을 딱 맡겨 주라고 그러지 않아요

1055 남)몰보는 사람은 서윤호씨가 한다고

여) 서윤호씨는 원예일을 맡기고 저 사람은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입니까

1103 남)내가 두번 맡겨 줬거든요 할배가 시켜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1110 여) 그게 잘못이라고요 내 얘기가 처음 온 사람이 어떻게 한번만에 그 일을 할 사람이 됩니까 일주일이고 열
흘이고 자기들도 그 일에 익숙해지지 할아버지도

1126 하루아침에 새로 어떻게 해놔니까 그 사람들이

남) 서윤호씨는 가르쳐주면 할려고 애를 쓰는데 저 사람은 뻔질거리고 그런다 이거 아닙니까

원장) 안 할려고 뒤킴을 지고 그런다고

여) 그렇다면 직원들이 다 같이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줘야지 서윤호씨는 휴가만 나가면 술먹고 그 뒤킴 안 들어
온다 저 사람들이 서윤호씨는 그러는데 왜 봐주냐 이거야

1410 전화할)뒤에서 말릴을 때는

1507 경찰과 이사장(?)

1748 이야기 도중 전화받는다

1823 누군가 부르자 '응' 하고 나간다.

1856 다시 경찰서장이 들어온다

2518 여자 목소리만) 김상희씨 바쁘다고 간다고 빨리 좀 보잖아.

2530 여자동장

2619 경찰과 여자가 함께 나간다.

2650

2828

2835 이사장과 대화하는 김상희씨

숙소에서 홍성훈, 김상희 인터뷰

4107 홍성훈 인터뷰) 내가 목소리가 크다는 건 인정해요 그러나 내가 목소리가 커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요만큼이
라도 피해가 있다는 사람이 나오면 내가 얘기 안해요 더 이상 애네들이 여기 사람이 6명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보낼
려고 계획적으로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에 전화를 한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주방장은 식사문제 때문에 총

무하고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 같은 경우엔 중간에서 말린 죄밖에 없는데 목소리 크다고 나가라는 거야 난 억울하다고 따지니까 억울하면 법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방에 들어오는 거 조차 업무방해해요 내가 이 억울함을 누구에게 얘기하겠어요 내가 술 먹고 와서 큰 소리로 얘기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불편하게 했다면 난 말할 자격도 없어 내가 그래서 [아침을 여는집]에 전화를 했잖아 그랬더니 여기서 나에 대한 얘기를 밤에 와서 시끄럽게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불안해서 밖에 나오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건 오해다 내 자초지종을 얘기했어요 이해를 하더라고요 나는 6개월 계약을 했으니까 있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랬더니 나중엔 시설에서 그냥 보기가 싫다 맘에 안든다 이거예요 맘에 안들면 다른 시설에 보내달라 내가 여기서 무슨 폐를 끼쳤다고 나쁘게 전화를 하느냐 내가 이런말 하는게 도움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엄청 억울해요 나는 그만 뒤야 할 이유가 없는데 이사장은 업무방해고 억울하면 법적으로 해라 사과를 했어요 인정했어요 나는 오해다 나는 원상복귀 시켜달라 그러면 조용히 있겠다 그런데 왜 [아침을 먹는 집]에 전화를 해서 거기다까지 얘기 했느냐 필요없으면 필요없다고 그대로 말하지 내 이미지가 뭐가 되느냐 진짜 그건 인권침해다

4703 김상희) 당사자가 허락을 했는데 이사장이 싫다니 어떻게 뒷다리 잡고 살려달라고 할 수 없는거 아니예요 누군가 고자질을 했다는거 아니예요

4740 홍상훈) 사람을 나쁘게 볼려면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 계속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잘못보는데 어떻게 할거야

4840 김상희) 가라면 가는데 그 사람 양의 탈을 썼다 이거야 따데는 안 받아주는데 그 사람 받아준다고 그래 놓고 저 사람은 목소리 크고 나는 총무하고 싸웠다고 그전 45일전에 해결이 났다니까 당사자끼리 해결을 받는데 이제 와서 이유를 들어 가라고 복지부가서 그 때 총무는 검은돈 처먹었다고 봐야돼 부산애팡 양로원 부정 있더라

4950 홍상훈) 원상 복귀시켜달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아침을 여는 집에 전화해서 나쁘게 얘기한거 취소하고 [아침을 여는집]에 전화해서 밤에밖에 나와서 하도 떠들어서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했다가 일주일전에 전화를 했대요 두사람을 보내야겠다고 말일날까지 일을 하게 하고 돈이 나오니까 돈 줘서 보내라고 얘기 했대요 불상사가 있으면 내가 언제 그런식으로 했냐고 왜 그런 식으로 거기다 얘기 했느냐 거기서도 피해를 주는 대상이 안된다는 거야 (목소리 큰건) 대면을 시켜서 안되면 감사들어간다는 거야

5257 자는 사람 모습

5308 해고당한 아저씨 다른데 구할 동안 한달 돈 줘야지 안주면 안가 밥 먹고 일도 안해 구해주지 않으면 안가ZO

5332 잡자는 아저씨 CU

5344 짐싸서 나가는 아저씨 뒷 모습 42" -57"

5400 떠나는 김상희 인터뷰) 목적지가 없지 뭐 안그래 서울 물 난리 나서 일자리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지금은 부산역에 가서 가방을 맡기고 차를 먹던 술을 마시던 차후 문제를 생각해 봐야지 지금은 어디가서 호소할 수도 없고 권한이 이사장에게 있으니 복지부에서 어려운 사람 보내준다고 보내놓고 월급도 제대로 안나오고 (남남끼리 모여서 일하다보면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는데) 총무와 싸웠는데 화해를 했다고 서로 사과하고 우리는 5개월 계약을 하고 오고 싸우고도 합의를 봤는데 가라면 이사장 바지사락 붙잡을 수도 없고 확실히 목적지 없이 부산역에 가방 맡기고 생각해봐야지 원인제공은 나지만 결과가 나뉘었으니 억울하지 이사장이 퇴소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이 복지부에서 월급 주는데 단지 먹는거 잡재워 주는데 싸움도 없이 지낼려면 길거리 병신데려다 일을 시키지 사모님 얘기는 달라 6명이 많다 잘라야 되니까 개는 목소리 크고나는 총무하고 싸웠으니까 타켓이 되는거지 자르는 이유를 어디다가 호소해 그러니까 안된다고 내가 인식하기로는 누군가 고자질을 해 우리를 보내는 거라고,이마 총무와 합의를 해서 끝났는데 왜 자르냐, 싸우고 목소리 크니까 가라 김선생님 맘대로 하라는데 내가 어떻게해 돈도 받았으니,가긴 가는데 그냥 물러서진 않아 배우고 아는건 없어도 서울 올라가면 복지부에 가서 담당자에게 따져보고 얘기하고 합당하면 다른데 가서 복직하는 거고 안되면 그만 두는 거고 정 안되면 난 세무사가서 거짓말 아닌 거짓말 하는 수밖에 없어 처사를 이렇게 하더라 감사를 한번해 봐라

고향은 대구고 집은 서울, (5907)IMF터지기 전부터 원래 장사를 했는데 질문)가족은 다 헤어진거지 마누라하고 이혼하고 거지 됐는데 누가 살겠어요 여자가 이혼했버리고 애들은)다 헤어졌다고 봐야지 실질적으로 나는 뭐 혼자고 세상 살기도 싫고 원래 내 나이는 50이고 범으로는 47인데 여기가 원래 수녀원에서는 50까지를 삼았다고 내가 나이가 47이고 건강하고 주민등록있으니까 됐고 30년간 생활해가지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일해본 것은 처음이야 노가다도 안 해보고 오로지 식당, 다방, 카바레, 나이트 클럽에서도 있어보고 다 있어봤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하고 여기가 처음이예요 아침밥이 6시 반이라고 그러면 5시에 일어나야돼 일단은 문제는 있었어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댓가가 이렇다는 것은 나로서는 이사장의 처사가 못마땅하고 처사가 나쁘더라 이거지

10032 택시타고 떠난다

10057 애팡양로원 현판 CU ZO 전경

TAPE 4

에광양로원(동료 인터뷰)

전광수(25세 미혼) 인터뷰

서울역 집회(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전광판 촬영)

서울역 스케치(노출부족, 전광판밤 촬영)

추석 가족단위의 귀향객,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줄아웃 팬, 서울역대합실 내부 마네킹
밤의 전광판 [나오는곳] 팬 서울역 [서울역] 내온사인에서 TD 서울역 입구

에광양로원

0015 주방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 내가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만두게 되면 경실련 측에서 말하길 취업도 안되고 해서 계속 있기로 했어요 봉사하는 일도 팬찬은 일이고 계속 있어야지 트러블이 좀 있어서 그만 두려고 했어요

0047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든 큰 잘못이 없거든요

0050 한 사람은 가시고 한 분은 마음이 울적해서 바람 쐬러 갔는데 한 분은 40 한 분은 쉼이 다 됐어요

0107 아들이 있어서 학비도 계속 붙여야 하는데 여기서 당장 나가라 하면 갈데라곤 당장 서울역 서서문 공원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여기서 쫓겨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어요

물 잠그고 경실련 측에 전화를 해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요 합당한 이유가 없어요

0216 싸운사람 인터뷰 싸우시지 않으셨어요 며칠전에 싸움은 돼지도 않는데

(음식 준비하는 장면 설거지 하고 다리미 얘기하고)

0426 총무와 싸운 이야기 밥 시간이 늦었었어요 12시까지 배식이 11시반인데 늦었어요 밥 배식 담당이었거든요 식당 아줌마는 쉬는 날이고 그런데 그날 가스(기계)가 초장이 났어요 밥하는 기계가 고장나서 담당이니까 책임을 져야 하는데 시간이 오버되고 총무가 밥 먹으러 왔다가 내가 일하다 이런거 처음 봤다 김씨는 자초지종을 물어봤어야 했는데 다짜고짜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싸움이 시작됐어요 몇 년된 기계라 잘 안 돼서

0652 원장실 몰카

서소문 공원

0821 (카메라를 든 복길형) 중구형) 찍어도 괜찮아

서울역광장

0910 서울역 비둘기

1010 전광수(25세 미혼) 인터뷰 일용직 신경 안쓰고 자기네들 금융노련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개들 전변에 나오고 그러는데 머리가 크신 분 들인지 뭔지 몰라도 신경을 안 쓰더라구요 민주 노총도 나오고 그러는데 노숙자들 신경을 안 쓰더라구요 노숙자들하고는 별개의 취급을 하더라구요 원(래) 부랑자 빼 놓고는 좋은 사람들 많거든요 사업하시다 망하신 분도 있고 사업하시다 망하신 분도 있고 연금혜택 안 받는데 일하신 분도 많고 그러는데 너무 무시하는 거 같아요 대학 나온 사람도 노숙하는데 그 사람들이 시위하고 그러면 같이 동참하고 같은 눈 높이에서 머리 큰 건 인정하지만 눈 높이에서 서로 맞춰주고 하면 좋지 않을까 너무 저기하니까 문제있더라구요 우선 맞춰줘야지 자기네들 혹하다 가버리고 혹하다 가버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와서 저기 할려면 노숙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말동무도 해주고 편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1155 (질문)언제 노숙하셨어요 6월말이요 노숙 처음에서 서소문 공원→철도청 건물 거기서 왔다 갔다 했어요 서소문공원하고 서부역하고 서소문 공원과요 요즘 밤에 출타라고

1220 (질문) 힘들지 않아요? 노숙하는거 답 노숙이 힘든 것 보다 일을 못하니까 일 못하고 지금은 내가 별 받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여태까지 잘 해왔으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 했으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까먹지 않고 남의 말 잘 듣고 남에게 해 입하지 않았어야 괜찮은데 일안하고 그만두고 내 고집대로 해 가지고 별 받는거 같아요

(질문) 예전에는 어떤 일을 처음에 어렸을 때 주유소에서 일하고 서울 올라와서 노가다하고 막일도 하고요 택배운전일도 하고 그렇게 일했습니다. 일자리 잃은 지는 작년 12월 초에 잃었다가 다시 아는 형님하고 같이 다른 일을 해볼려고 있었는데 6개월동안 하나도 진척이 안돼서 6월말일날 실직자가 됐어요

1410 (질문)언제요 6월말일이요 6월말일날 나왔어요 (질문)실직하자마자 곧 바로 나왔어요? 곧바로 나왔어요 영등포에서 이틀 있다가 여의도에서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서울역에 가라고 그래서 여기 나와서 밥 먹고

1434 (질문)갈만한데 없었어요 실직하고 나서 우선은 일자리 소개서를 갖는데 배를 타라고 그래가지고 배 타는데는 소질이 없어 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일자리가 없더라구요 일자리가 없어서 상담도 많이 했는데 연락이 안되고 그러니까 일을 못 갔죠

1505 공공 사업 같은 것도 사람들 다 차고 채 접수도 안 받아주고

1512 노력은 많이 했어요 여기 있으면서 일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고 놀리는 생각을 한번도 해 본적이 없어요 그 전에도 일을 할래다가 안 되가지고 그 전에도 돈이 급했지만 여기나오니깐 더 절실하고 그래 가지고

1535 (질문)일자리가 그렇게 없어요? 1538 저는 배운게 없어 가지고 그런지 나한테 맞는 게 없더라구요

1553 운전직, 운전을 하거든요 운전직을 좀 할려고요 운전할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운전직하고 돈 벌면

1629 직업훈련 받아서 재교육 받으려고요 내가 좋아하는 걸로

1638 중구형이 담배불 붙여 주고 PAN좌→우 담배피고

1711 (질문) 친척 분들 없으면 가면 뭐해요 배 다른 친척은 있는데 간다고 하더라도 뽕족한 수도 없더라구요 간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전에 내려갔는데 고모부가 실직했더라구요 소용없죠 뭐

1751 (질문)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자다가 여기서 하는거처럼 평상시대로 똑같아요 자다가 일어나서 아침되면 밥 먹고 점심되면 밥 먹으러 다니고 몸 아프면 약 타러 다니고 아니면 구인 그거 나오면 일자리 있나 없나 찾아보러 다니고 여기 돌아다니는 것처럼 돌아가는데 형식적이지만 뽕족한 수는 없더라구요 만데간다해도 좋은거 없고

1835 못자리 매고 지나 다니면 괜히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러니까 어디 뽕족하게 돌아다니는 수도 없더라구요 죄인 아닌 죄인 취급 받는거 같아요

1904 (질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으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1923 나도 솔직히 말해서 내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을 하면 내가 봐도 게으르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온

사람들도 본 사람들 보다 게으른 사람들도 있다고 보는데 웬만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거든요

1941 여기 있다보면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고 질문) 왜요 노숙을 하다보니까 찬바람 쐬고 여기있다 보니까 춥고 어떻게 생활했는지는 몰라도 여태까지 겪은게 있으니까 잊으려고 술 먹고 그러니까 몸이 많이 망가지니까 그런 사람이 다니다보면 남들 눈에 비칠때 게으르게 보이죠 같이 잘 맞춰 준다면 그렇게까지 갈 것 같지 않아요

2027 나도 처음에는 술을 많이 먹었거든요 질문) 왜요 처음에는 일자리가 안 잡히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도 많이 사귀고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술 먹자고 하나씩 먹고 그러니까 몸이 망가지고

2041 술을 안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알콜 중독이 아니라 밤에 잘 때도 땀 몸으로 잘려고 해도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 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있으니까

2106 제가 그 아저씨 얘기를 들어봤는데 사업하시다 망하신 분이러는데 모르겠어요 구체적인건 남들 얘기로는 술 드시고 밥 안 드시고 노숙하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한 분 얼마전에 돌아가셨거든요

2147 저하고 비슷할 거 같아요 만난지 얼마 안됐는데(들어온 낯은)여기서는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고요(힘들어서)

2220 웃으며 처음에는 아저씨 돌아가시고 아침에 얘기하던 아저씨가 돌아가실때는 황당하고 허무하고 기분도 그 래 가지고 서울역에 있기 싫고 돌아가신 원인도 문제가 있었어요

2255 비가 많이 왔는데 서울역에서 낮에 아무리 서부역에 장사한다고 하더라도 비올때 앉는 자리에 며칠 동안 비가 왔는데 낮에 물 안 뿌리고 했으면 내 생각이지만 배려를 해 줬으면 그 아저씨가 안 죽 지 않았을까 저도 비가 와서 사흘동안 잠을 못 잔적이 있었거든요

2328 비가 많이 오고 낮에는 못자게 하고 잘 때는 없고 비는 오니까 저녁에는 비바람 치고 그러니까 깔아놓고 잘 려고 해도 비가 막들어오니까 지하도는 물이 차고하니까 그때 전부다 잠 못 잤을 거예요 그때 돌아가셨거든요

2348 질문썬터에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썬터에 처음에 들어갔어요 썬터에 처음 들어갔는데 제가 뭐 좋은데 들어 갔는지 안 좋은데 들어갔는지 몰라도 거기도 웬만큼 생활 용품이나 옷가지나 가지고 있어야 들어가더라고요 웬만한 차비정도는 들고 다녀야지 하구 일도 20일만에 구해야 하는데 내가 나올때는 내가 할 자리가 없어거든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고 옷 가지도 서부역에 와서 다 잃어버려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잔다고 하더라고 거지랑 다름 없더라고요 오히려 더 못하더라고요 밥먹으러 여기까지 나와야 되니까

2503 제일 힘든 건 밤에 잘 때와 밤에 잘 때하고 남들 눈도 그렇고

2525 여기 있으니까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몰라도 안 좋은 얘기가 돌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따듯 하는 시선보다도 나쁘게 많이 보는 시선이 있어가지고 언론이고 뭐고 방송국 같은 데서 나와도 내용도 얘기 안하고 적어가서는 뉴스보면 완전히 나쁜 사람 취급하고 그렇게 많더라고요 요즘도 그래요 너무 나쁘게만 보니까 오보가 많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2610 사실 일자리만 있다면 예전에 수해때도 그랬지만 일자리 있으면 사람들 여기 많아요 와서 만약에 단체로 일 보내줄때 여기있는 사람들 우선으로 해 가지고 먼저 돈을 벌어서 해가지고 방을 구한다면 절대 이 사람들 나 올 사람도 아니라고요 나갈때도 일주일 일 나가서 그 동안은 밥도 안 얻어먹었고 누구한테 담배 꼬지도 안하고 서 울역에서는 담배 꼬지 많이 하거든요 담배 달라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많이 했거든요 나도 처음엔 많이 했는데 돈 벌고 나니까 그게 싫더라고요 내가 보기에요 그때 나갔던 사람들이 일 나간 사람들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담배 꼬지 하는 사람도 많이 줄었구요 사람들이 일나가고 돈 있으면 안 하는데 모든 것을 똑같이 보니까 그게 문제가 있 더라고요

2728 추석에 제사를 못 지내니까 장남인데 매년 시골에 내려가면 부모님 산소에 돈은 없더라도 몰래가서 술 하고 놓고 오고 절하고 그러는데 올해는 차비도 없지만 내려간다고 해도친구들 보기도 민망하고 물론 친구들이야 내려가 면 잘해주는데 내려갈려고 생각해도 몰래갔다 왔으면 좋겠는데 그럴 여건이 안되니까 그게 제일 힘들어요 어디서 공동 제사 지내 준다면 한번 잘하고 그러고 싶어요

2834 그런 내가 바보 같아서 할 말이 없어요 ZI 내려가면 좋긴 좋은데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내려가요 다른 사람들 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나이가 어려서 괜찮은데 나이많은 아저씨들 집에 가 장들 그 분들도 문제고 다 문제조 우리만 있었어요 ZO다른 사람도 있는데

2919 부모님한테 죄 짓는 거조 불효하는 거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어요 내가 잘난 놈이 아니라서

2950 여기 있는 사람들 일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그 때 있던 사람들도 있지만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노가다 좀 나가고 그런 사람도 있고 일 있을때 사람도 없었어요. 사람 많이 바뀌었어요 저 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많 은데 썬터로 들어가고 방도 여러 명에서 같이 모아 들어간 사람도 있고 많이 있는데 좀 있으면 겨울인데 일거리가 없으면 또 밖으로 나오는데 지금은 여기서 카드도 만들어 주고 그러는데 그 때 그 사람들 나오면 그렇게 없으니까 돈 벌어 들어간 사람들이 겨울에는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고 다른데서 일을 하니까 그 일이 없으면 도로 나오니까 그 때 되면 또 이런 문제 나올거 같아요 일 있으면 다 나가요 꺾어보셔서 알겠지만 솔직히 담배달라고 인사하고 막 그러는데 내가 생각해도 못 하겠더라고돈 있고 그러니까 그게 안되더라고요 하고 싶어도 있으니까 안 돼더라고요 일을 해 가지고 벌고 자신감도 생기고 돈이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절대 그 짓을 못하겠더라고요 일을 하니까 돈이 있으면 미쳤다고 그걸하고 미쳤다고 밥 얻어 먹으러 다녀요 여기 돈 번 사람 들 보면 밥 남겨서 가는 날이 많 아요

3157 그러니까 수사님인가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런 날이 많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없어서 밥이 남아 야지 좋지 내가 봐도 그게 좋을 거 같아요 일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많아가지고 한번은 일자리 없어서 밥을 적게 해 가지고 뒤지게 싸운적도 있었어요 밥을 적게 해가지고 다 일들어가서 집 구한지 알고 지금은 오히려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많이 바뀌었고 올지로도 가보고 그러는데 엄청 늘어났어요 배는 늘어났어요 처음 보는 사람도 많고 일 만 보내준 다면 여기 있을 사람도 아닌데

3256 동네 영세민들도 있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우선적으로 3개월이나 반개월 동안이라도 공짜로 돈 달라는거 아니 랴요 일 보내준다면 로테이션 해서 보내주고 처음에 이 사람 이 사람 단계적으로 걸려서 보내주면 서로 좋을 거 라고 생각해요 떨어질만 하면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한 쪽으로 편중되니까 처음 나는 나를 다편이라고 생 각했단니까요 여기있는 사람은 몇 백명인데 일 나가는 사람들은 몇 십명 나갈까 말까하고 그러니까 복권 당첨되는 거 같더라고요

3351 애기만 나오면 노숙자들은 일은 안 한다느니 솔직히 많은 사람이 그러는데 높은 사람들도 여기서 와서 노숙 한달만 해봐요 힘이 부친다니까요 힘 빠지지 먹는거 부실하지 잘 나온다고 그렇게 잘 나오는 것도 아니지 바람 실 실 켜고 힘이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건드리면 힘이 없어 쓰러지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해하고 좀 나아질 때까지는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괜히 입을 못하니 솔직히 정상인도 한달 여기다 노숙시키고 일 시키면 일 못해요 내가 봐도 저 새끼 일 못하네 잘라버려야지 그 소리 나올 정도라는데 한 며칠 동안 데리고 일하다 보면 힘 붙고 하면 일 하는데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해하지 못하는거는문제가 있다고 봐요

3514 노숙자들의 몇 명이 니들 밥 안줘 하니까 같이 있던 사람이 절반이 가 버렸어 나도 술 마시다가 나오라고 그러더라고 나는 안 나갔지 노숙하는 애들이라니까 좀 문제 있는거 같지 않아 그러니까여기는 데모 안 할 거 같애

3616 다른 노숙자들이 데모하자면 열이면 열 사람이 데모 안해요 거기서 두 세명이 하라면 할까 안해

3635 왜 데모하자고 그러는거 같애요

3700 원래 있던 애들 잡아놓는다 경찰이 용돈도 주고 가고 그런대요 경제사범 잡으려고 용돈도 주고 가고 그러다 그러더라고요

3715 종구) 노숙자가 데모를 하면 구심점이 있어서 목표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3745 진광수) 처음 나온 사람은 참석해요 점점 갈수록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런데 점점하고 오면 리스트에 올라가 있고 그런거 같애

3810 처음에 누가 찍자고 하면 카메라 부수고 그래 용산역에 두드려 부시고 그래

3818 진광수) 언론에 대한 불만 내가 처음에 석달 전에 와서 카메라 보면 두드려 부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찍거나 말거나야

3858 종구) 시위의 목적이 뭐냐면 목소리를 혼자 내는거 보다 합쳐서 목소리를 내자는것이 집회의 목적이예요 한 목소리를 내 주느냐 아니냐는 그 사람들 닦하기 이전에 충분히 설명했느냐 안 했느냐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그게 옳은 것이라면 내가 먹고 사는 것이다 하면 누가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거 하자고 하고 돈 받아서 쟁기고

3937 실업자 연맹이라고 왔는데 요구하는게 너무 황당하더라구 데모를 해도 남한테 씨알이 먹히게 해야 되는데 실업자 연맹 사무차장이라고 온 사람이 실업자 무보증 대출 1500만원 돼지 값을 그런 황당한 내용을 가지고 하면 그게 강패지 일자리가 중요하지 일 자리 정도를 해야지 천 오백 만원 대출 해준다고 해도 그걸 갚으려면 들굴 빠져 나라고 요 모양 요 꼴이라 못 갚아 절대 못 갚아

4049 요구가 너무 황당하니까 데모를 하고 싶어도 데모도 하기 싫더라구 무보증에 천 오백만원 여러 가지 황당한 애기가 많아서 데모를 할래도 조절을 해서 해야 돼는데 그 인간 한테도 얘기 했더니 될 소리가지고 하라고

4147 동네에서 유언비어가 많이 나오더라고 어떤 자원 봉사가 와서 도와줄려고 그러는데 일보다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문제 있어 그 여자.

4235 이걸 바라는 거지 약간 욕심이 생기니까 자기 땀에 힘드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4254 그 사람 문제 있어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를 안 하더라고 신문 보니까 노숙자들이 알 수 있게 얘기를 해야지 신문 보니까 밥얻어먹으러 온 노숙자들이라고 나오더라고 공개를 해야지

4344 뭐가 지나간거 같아 돗자리가 없어졌어 돗자리 금방 없어졌어 오늘 밤 잠 다 잤다 내 이불이자 담요인데

4426 서울역 집회(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전광판 촬영)

5102 서울역내부 스케치 (노출부족, 전광판밤 촬영)

추석 가족단위의 귀향객

5702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줌아웃 팬

5708 다시 서울역대합실 내부 마네킹

5834 밤의 전광판

10104 [나오는곳] 팬 서울역

10130 [서울역] 네온사인에서 TD 서울역 입구

TAPE 5 사회복지시설 유료 봉사단 발대식, 아침을 여는 집 거리 홍보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정을 위한 국회앞 농성, 서울역밤 노숙투쟁 집회 (TC불량)

0016 사회복지시설 유료 봉사단 발대식 모습

- 0036 설명 5상에 일어나는 것이 원칙이다
- 0136 편지 나누어주기(스케치)
- 0408 담당자와 상담하는 노숙자
- 0444 사회복지 플랭카드
- 0452 담배피는 모습
- 0510 편지 나누어 주기
- 0636 서울역 앞

TIME CODE 변경

0003 아침을 여는 집 거리 홍보

- 0032 "생명을 살리는 쌀을 도와주십시오"플랭카드
"서소문 공원 사진"
- 0107 거리에서 도움을 호소하는 사람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전단 나눠주는 모습
- 0505 아침을 여는 집 소개, 노숙자 사진
- 0532 전단을 읽어보고 사진을 보는 시민들 관실문리 보이는 시민들
- 0730 '아침을 여는 집'대한 신문 스크랩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정을 위한 국회앞 농성

- 0753 북부시민여성 김혜숙 회장
- 0915 대표의 앞쪽에 앉아서 동참하고 있는 시민들 삼일전에 철거 투쟁을 하다가 과로로 사망 하신 분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 가난한 여성의 고통을 삶을 사시다 가셨다.
- 1048 여의도에서 시위하는 모습 국민보장법 제정
- 1201 송경용 신부 좋은 소식을 못 가지고 와서 죄송하다 대화라는 게 늘 노력하겠다는 수준이다 법을 통과시키는데는 문제가 없으나 예산이 문제다 사회복지부에서는 1조 7천억원이 예산이 올라 왔는데 저희가 추정키로는 4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복지부에서 올린 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각일것을 감안해야 한다 그래서 화합이나 위기상황차원에서 저소득 노동자의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것이다 최선을 다해달라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 1408 김원길 의원이 대통령 주례보고가 있는날 대통령에게 심각성을 알리고 당정 협의회에서 예산 절충이 되면 다시 만나자 우리는 더욱 노력하고 우리에게도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더 바빠 뛰어야 겠다 서울 전교자 사회복지협회에서 7월 31일 기자회견 성명회 발표 8월 중순경 종교계 지도자 최고 지도자와 회견 국정 전반에 관한 회견을 하기로 했다
- 1644 노래(임을 향한 행진곡)
- 1752 유영우 회장 인터뷰 잘 될것도 같은데 정치인들이 약속을 잘 안지키니까 그래도 끝까지 관찰시켜야
- 1832 김진홍 빈민연합대표 한나라당에서 생활 보장법을 결정이 나도록 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실업대책협의회에 연락을 해주겠다고 한번으로 끝낼것은 아니니까
- 2026 서울역 밤 인터뷰 노숙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다 노숙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정부에서 많이 해주면 그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식사제공도 더 좋고 참여하는 호응을 더하고 인테리어 공장을 하다 실직한지 작년 크리스마스이브전에 나왔다 직업훈련에 가서 훈련받고 지금은 경기도 관주영서 일 잘하고 있다
- 2458 시계탑 서울역 전경
- 2519 시위현장

서울역밤 노숙투쟁 집회 (TC불량)

- 공공근로사업(푸른숲 가꾸기)
- 노동자 인터뷰
- 김진팔의 방해
- 권영길 연설→ 43분

TAPE 6

서울역에서 '거리의 소리'만남(박영민, 조내수, 윤종구). 공원에서 예배드리는 교인.
공원을 촬영하는 여자. 이발하는 종구형, 머리감는 박종필. 은행가는 두수형
막내 인터뷰

0000 서울역에서 '거리의 소리'만남(박영민, 조내수, 윤종구)

3059 공원에서 예배드리는 교인

3339 공원을 촬영하는 여자

3420 이발하는 종구형

3845 머리감는 박종필

4608 촬영하는 여자와 만나는 종구형

4943 은행가는 두수형

5048 그릇에 담겨있는 은행

5107 은행나무, 은행가는 두수형

5127 은행모습

5139 은행 고르는 두수형

5152 담 흘리는 두수형

5347 은행나무 모습

5413 씻어서 팔아먹으려고 한 뒤에 3천원 돼요 한달 넘지

5523 떨어지면 따야지 딸 곳은 많아

5617 날씨가 너무 더워

5627 담 흘리며 은행가는 두수형

5729 막내 인터뷰 막내의 손 김태진(본명배가군) (은행 때문에 얼룩진 손) 은행까다가 은행까다 이렇게 됐어 6일째 다 팔았제 다 팔았조 먹고 10만원

5813 담배피우는 막내 형들하구 길거리에서 밤에 아침에는 구청땀에 못 따요 아침에 따는 사람들은 간 큰 사람들이 예요

5858 막내의 손 많이 나온 거예요 손이 완전 곰발바닥이네 나이는 15살 가짜 나이로는 17. 나이를 속인다면 원래가 14. 중학교도 지금 찢렸고 여기에만 3년째 지금 4년째가 다 됐어요 저도 지금 집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10044 집에 문제가 있어서 아빠하고 엄마하고 제가 지금 왜 집에 못 들어가냐면 도둑질을 많이 해봤어요 집도 털어봤고 금고도 따 봤어요 지금은 도둑질도 안하고 마음 잡았어요 (삼촌들이) 많이 도와줘요 연세 애들처럼 안 될려고 (마약먹는 애들)

10158 담배 피우고 약이고 본드 가스는 안해요 자전거나 고치고 노는 건데 기아 저전거 싸이클 일반 자전거고도 고쳐보고 저도 옛날에 싸이클 타 봤어요

- 0007 막내 인터뷰 저도 얘기하려면 길어요 얘기하려면 한 시간 기다려야 돼요 제일하고 싶은 얘기가 노가다를 나가봤어요 많이 용산 영동 노가다를 아는 사람이 있어서 용산은 사장은 아니까 시켜주고 많이 가봤어요 노가다도 제가 지금 제일하고 싶은 말이 집에 할아버지가 오래오래 사는 것이예요. 할아버지가 잘해주셨나봐 네 아버지와 어머니도 잘 해줬는데 유치원 때부터 나쁜 길로 빠져서 지금부터 나쁜 짓을 안 할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 0152 여기서 사람들도 나쁜 짓을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저도 나쁜 짓 안해요 지금
- 0206 저희집도 잘 사는데 제가 나쁜 짓 해서 그것 땀에 돈도 많이 물어주고 그랬어요 집도
- 0222 집을 왜 안들어갈려고 그러냐면 아빠한테도 많이 혼났어요 엄마 한테도 가출을 시작한지가 유치원 때부터 나쁜 짓 시작해서 안하다가 하고 저도 경찰서도 몇 번 들어갔다 앓다 해 봤어요 지금 별을 안 달고 있다 뿐이지 보호감찰소 가서도 자 봤구요 저도 제일하고 싶은 일이 자전거 고치는거 꿈이예요 저도 자전거도 많이 고쳐 봤어요 개조해서도 타보고 많이 타 봤어요 여기있는 자전거 하나 앞 바퀴가 조그만하죠 그거 제가 개조했어요 앞바퀴가 빵구 나서 버리는 앞 바퀴를 가지고 와서 붙여준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고물잡는 것하고 은행 잡는 거하고 그런 거밖에 없어요 지금
- 0412 고물 잡으려 갈려고 아침 7시 아니면 10시에 나가서 고물 잡는거예요 길게 나가면 새벽 1시 2시 (몇시에 끝나)6시 자기하고 싶은 만큼만 잡는 거예요 그냥 저도 놀고도 싶은데 국민학교는 졸업 했구 중학교 1학년 때 잘렸구
- 0513 친군데 밀었어요 학교선생한테 혼나다 혼나다 맞고 학교 지금은 잘렸구 저도 지금 가명도 있고 본명 이름도 있어요 가명은 김태진 본명은 배가군
- 0617 학교는 가기 싫어요 아는데도 없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찬송가 저도 지금 담배를 많이 피워요 잘 안피워요
- 0642 옛날에 디스, 옛날엔 천막도 많이 쳐봤구 많이 해 봤어요
- 0706 노숙자들도 많이 놀아왔구 노숙자들도 왜 이렇게 된 걸 알고 구조 때문에 이렇게 된 사람도 알고 찢려서 이렇게 된 사람도 있고 사정이 많아요 사장하던 사람도 나왔구 집에 무슨일이 있어서도 나왔구 죄를 저야 여기에 나온 사람도 있어요 몇 명은 있어도 다 좋은 사람들인데 일갈래도 주민등록증도 없는 사람은 못 가구
- 0757 사람들도 많이 고민해요 (일을 갈려고 하는데 일이 없는거야)네 저도 일 있으면 노가다 하러 갔는데 노가다도 잘 안 받아요 옛날에는 일이 많았는데 삼질 그런거 8월에 골프장에 산 사태 나서 가보고 많이 가봤어요 내가 제일 하고 싶은 일이 삼질 집에서든 벗가마니도 들어왔구 제가 왜 집을 싫어하느냐면 저와 엄마하고 아빠하고 문제가 커요 저 때문에 제가 많이 거짓말도 하는데 나이 때문에도 거짓말도 해 봤죠 원래 나이가 15이고 가짜 나이가 17이고 가명도 김태진 친구이름이예요 제일 좋아하는 친구는 서봉길 학교 다녀요 집 나와서도 개네 집에는 전화해요 일요일
- 1019 엄마하고 아빠 할아버지 동생 잘 살았으면 저도 떠날 마음은 이쁜데 떠나기 싫어요 떠나기 싫어서 안 떠나는 거예요 집에도 많이 잡혀가서 맞고 혼나고 그랬어요 그래도 안돼요 거짓말도 많이 해봤어요 집에서도 옛날에 공책 산다고 하고 먹을 것도 사다먹고
- 1119 담배를 피운게 95년도부터 담배를 피게 됐어요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지금도 피고 있어요 소주 안 먹고 막걸리는 잘 해요 한 병씩 먹구요 제일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두 그런 사람들만 좀 추방 좀 하는 방법으로
- 1228 (어떤 사람들이 나빠) 애긴 안해요 기억속에서만 없어지면 되는데 맞은 건 아니구
- 1250 죽을려고 약도 많이 먹어봤어요 농약도 먹고 죽을려고 강도 뛰어 내리수
- 1303 (왜) 살기 싫어서요 지금은 살기 좋아서 이려고 사는 거죠 물 떠다주고 심부름하구 소주 담배 심부름 값 얼마받구 그래요
- 1339 담배 만지는 막내
- 1350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일은)제가 잠을 많이 자요 새벽에 자면 올 밤에 일어나요
- 1406 제가 교회를 나갈려고 그래요 옛날에 다녔던 데가 동네에 나가왔고 지금 나가는데가 노랑진 연세교회 나가고 있어요 아침에는 못 나가도 밤에 나가요
- 1446 저도 많이 살아봤어요
- 1454 장갑 만지는 이거기고 은행따러 갈려구요 장갑을 끼면 이렇게 안 되니까요
- 1520 장갑이 없으면 이렇게 손이 버려요
- 1524 막내의 손
- 1524 막내의 손
- 1534 (걱정되는 것)할아버지가 안 돌아가시는 것 집으로는 전화 안해요 제일 좋아하는 친구는 서봉주 친구는 개뿐이 없어요
- 1610 저하고 봉주하고는 학교를 일찍 가서 중학교 2학년 봉주는 학교를 빨리 갔어요 지금 3학년이 되는 거죠 하기 싫은거는 공부 나쁜 길로 안 빠지는 거 하고 싶은 거 자전거 고치는거 저는 커서는 이렇게 안 살거예요 소원은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 고치는거
- 1730 유치원 때부터 자전거를 탔어요 학교에서 자전거 보관해주고 갈 때 찾아가고 자전거 탄지가 9년째예요 제일가고 싶은 데가 백두산 가고 싶으니까 가죠
- 1840 가스렌지 고치는 형들(복길형 두수형+1인)
- 2249 말리는 옷
- 2537 국수 먹기(옷 말리기)

2930 공원의 낮 김기태 인터뷰

2944 밥은 주는 대로 먹는 거고 여기보다는 다른데가 낮고 쌀이 좀 안 좋더라고 여기는 밥을 찌는 모양인데 다른데는 하니까 여기는 푸석푸석해

3035 아침을 못 먹어요 빵하구 우유 11시에 점심먹고 5시에 공원에서 밥 먹고 9시에 남대문 지하도에 가 밥 먹고 거리가 머니까 왔다갔다 하다보면
9시 남대문 지하도

3135 김광모 인터뷰 200원 있으면 먹습니다 교회에서 200원 받아서 밥 먹고 서울역에 노숙하고 오갈데 가진거 없으니까 노숙하고 나쁜 짓은 못하겠구

3223 나쁜 짓은 안 합니다 정치 욕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지도 몰라도 나는 논하지 않아요 능력 없으면 밥이라도 얻어먹고 살아야 되는 건지

3302 배고프니까 먹는 거지 내 입맛에 맞는게 어딴지 아침은 우유하고 빵 먹고 아침에는 밥 주는 데가 드무니까 점심은 배식해서 먹고 용상에서 먹고 저녁은 여기서 먹고 깔고 노숙하고

3352 일 있으면 일을 해야 되는데 노숙하다 보니까 온 몸이 쭈시고 다 아파요 일은 힘들고 돈은 3만 5천원이고 의욕도 없어요 일은 하고 싶어도 딴 사람은 하는데

3502 노숙자가 많으니까 리어카가 딸린다고 안하고 싶은 사람이 어딴지

3524 일안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정 깊은 사람은 밥 주지만 꿈 같은 얘기구 일거리도 별로 없거니와

3550 이거 죽으라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다 먹고 살아요 3만 5천원 받아서 술 한잔 먹고 밥 먹고 추우니까 교회에 2백원 주니까 그거 받아서 걸으면 배 허기지고 소주 먹고 구제금 타는 모습

3648 주는 것만 해도 성의껏 잘 먹죠 주는 주는대로 먹고 안 주면 굶고 자고

3730 식권 나누어 주고 기다리는 3시에 왔는데 5시에 밥 줘요 그래야 밥 표를 타거든요 그래야 겨우 먹습니다

3750 두시간 내지 세시간 걸립니다

3823 공짜로 타니까 사정사정 질을 몇 번하고 베들레헴 용산전자상가 안에서 먹으니까 피해는 별로 없죠

3909 밖에서 먹으면 아줌마 아가씨비웃고 우리가 좋겠습니까 밥 한 그릇 먹자구

3921 손 CU

3927 김기태 인터뷰 (밥그릇 김기태 TU) 서울역이나 공원 비오면 서울역 비 안오면 여기 이불이 없으니까 염천교 지하도는 쫓아 보내더라구 겨울 날려면 서울역 지하도 노숙자들이 다 거기서 몰려서 공원에 이불이 없으니까 이불도 안 나오네

4101 밥은 배 고프면 다 먹어야 되는데 추우니까 옷하고 일불하고 노숙자들 고민이지 쉼터에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지 쉼터에 자리가 없어요 먼저 온 사람이 다 자리잡고 있고 공원도 쫓아보낸다는데 갈데가 없잖아 돈 있어야 잠을 자는데 돈 없으니까 그 땐 강도 막 생기고 서로 싸움하고

4259 아침을 원래 안 먹어요 빵하고 우유주는데

4330 밥 비비는 것 ZU개밥인거

4348 (활) 고추장 없는 비빔밥 이게 밥인거 가정에서는 이런 거 안 먹는다구 점심은 용산에서 먹는데 9시쯤 출발해야 돼 그러면 중간에 거기는 7시에 오는 사람도 있어 왔다갔다 쉬었다 오면 이 시간 4시에 딱 오면 식권을 4시에 나눠 줘 밥 먹고 좀 쉬었다 3시쯤 되면 내려와 밥 먹고 사람들이 다 일찍 잔다고 9시서울 지하도에 앞 주면 밥 먹으러 가고 내일 새벽에 일어나 빵하고 우유 타먹으러 가고 하루 일과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많이 아는 사람은 교회가서 예배보고 돈도 없고 그러는데 그건 안 돼겠다 남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4706 부산 중공업에 있었어요

4808 5년전에 실직하고 노숙한지는 3개월 되고 많이 잃어버렸어요 집 보파리 다 잃어버렸어

죽은 CS 하루 저녁에 다 잃어먹고 용산에서 타 입고 내 옷은 하나도 없어요 다 잃어버리고

4929 3개월전에 집에 있었어 일자리가 없어서 일 찾으러 대전으로 돼 있어 청주 돌고 서울 왔어 서울오면 일거리 준다고 했는데

5041 신분증 다 잃어버리고 나이 먹고 젊은 사람만 일 시키고

5103 TD비빔밥

5118 김기태의 개질스럽게 밥먹는 모습 증인

5144 김기태 초종현 밥 먹는 모습

5217 인서트

5240 밥 먹으라고 실랑이

5329 형님 진짜 배 안 고파

5340 추종현인터뷰 1년 2개월 전에 그만두고 6개월 달에 시작했어요

5433 밥은 괜찮아요 아침은 빵하고 우유 점심은 용산에서 용산 밥이 제일 나요 11시에 11시 부터 다니다 빨래하고 머리 감으면 시간 가요 술 한잔 먹고 한술자고 그늘에서 자리 펴고 자고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차비가 없으니까 공짜 차 타고 전철 개 구멍으로 다니고

5643 PAN좌→우 추종현

5654 PAN 우→좌 김기태

5725 이용을 잘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안 온다고

5750 한 겨울부터 여기서 생활했어 내가 1호야

5811 악수하는 모습 PAN

5930 대낮에 삼각 팬티입고 샤워하면 그건 안 돼는 거야 자기 행각만 하고 타인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서가 안 들어갔지

10030 진정서가 자꾸 들어온다 이거야 자신만 생각하고 그러면

TAPE 8 안□□ 인터뷰 은행주는 복길형과 두수형 출근전날 내수형과 복길형
 일하는 할머니들 인터뷰 은행을 주는 막내를 만나다
 카메라를 든 복길형 서울역 밤 김광모 인터뷰
 서울역 내은 씨인 CU 서울역 붐 샷 고가밑에서 달려오는 차에서 켜 서울역 룬샷

0011 안□□ 인터뷰

2534 서소문 공원 스케치

2554 은행주는 복길형과 두수형

출근전날 내수형과 복길형

2634 복길이형과 내수형 장난치기

2758 착잡한 내수형 공원을 거닐다

2826 복길과 내수형이 담배 피우고

밥그릇 들고 장난치는 두수형

의자에 앉아있는 복길이형

3149 누워있는 복길이형

3150 일하는 할머니들 인터뷰

3603 은행을 주는 막내를 만나다

3638 카메라를 든 복길형 잠을 자는 형들

3713 필을 촬영

3752 서울역 밤 김광모 인터뷰

저는 갖고 있는 건 다 있어요. 집이 바로 앞인데 왜 안들어갈려고 하느냐면요 이유가 뭐냐 요새 일거리가 있어야죠 돈은 줘야죠 가진 건 없지 한달이면 21만원 24만원 주면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전기세 수도세 줄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 벌어요 도둑질 해요 강도질해요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빵하나 우유 세 개주면 배 채우고 서부역에서 주소는 만대문 오가로 돼 있어 남에게 도둑질만 하고 착실히 해 보겠다고 하는데 일자리 3만 5천원 가지고 가겠어요 옛날에는 못 벌어도 6,7만원 벌어요 노숙자가 있고 우리는 실직자가 아닙니다. 밥을 얻어먹는다는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3944 밥을 얻어먹는 다는거 아니에요 창피고 뭐고 없어요 철판 깔고 살아요 큰집이나 작은 집에서 보면 TV에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육한단 말이에요 차라리 뒤져 버리는게 낫다 이거야

4023 일거리를 찾아도 꾸준한 일이 없다 이겁니다. 복구사업해서 그 사람 3만 얼마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골프치러 다닌다 말이에요 자기 똥만이라도 아니고 똥누면 휴지 닦아 주는게 나요 아무리 잘 낚어도 돈 있는 사람은 배짱은 있겠지만 내 이름 알지만 얼굴이 안 좋다 눈이 퉁퉁 부었다 배가 나왔네 내 속을 벗어놓으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렇다고 가진게 있어요 빌당가서 한번만 도와달라고 하면 젊은 사람이 할 일 없이 이렇게 와 도와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돈 2천원 받아오면 라면 끓여 먹으면 없어요 저녁에 추우면 쪼그리고 잔단 말이에요 그러면 라면 하나 끓여 먹어요 차도 기름이 있어야 움직이듯이 사람도 배를 채워야 될 하든 도둑질 하하고 강도질 안하고 차라리 돈 있는 사람한테 가서 돈을 받아서 언젠가 돈을 되돌려줄수도 있겠고

4300 실직 당한지 일년 넘었어요 처음에 농장 정육점, 식당일 안 해 본 것 없습시다 오갈데 없으면 여기서 자는 거예요 노숙한지도 일년이 넘었어요 일거리 찾아보면 있겠지만 단가가 너무 싸고 나는 안 가봤는데 일이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노숙하는 사람은 추우니까 소주 먹으니까 식은 땀 나고 술 냄새 나잖아요 술을 안 먹을 수도 없고 아저씨는 안원다고 잘라버린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불도 주고 돗자리도 주고 아주 살으라 이거야 이렇게

4504 쉼터도 누가 알선을 해줬는데 저녁에 몇시에 들어오고 아침에 몇시에 일어나고 그렇게 다 있더라구요 일도 알선해 준다는데 천만에 말씀입니다

4545 쉼터에 들어가면 좋기가 좋겠조 가면 어려운 점이 있겠조 노숙하는 사람이 한 두명 입니까 노숙하는 사람들 보고 울고 가요

4624 나는 친척은 있지만 부모 형제는 없어요 3남 1녀인데 큰 둘째 형 아파서 돌아가시고 누나는 이북에 식염 딸로 가고 혼자 떠 돌고 있는 거예요 결혼은 못했어요 나한테 올 여자도 없고 능력이 없어서 전세방이라도 있어야 오지

458 내 입에 맞는 떡이 없조 그러나 할려면 할 수는 있조 그렇다고 내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데서나 일은 못하겠다고요

4819 몸이야 말 못하조 배부터 나온거 보면 몰라요 용산 베들레헴가면 추천해서 손 수술을 받았어요 토근 4개에 전화카드 2천원짜리도 받고 처음에는 옷한벌 사주고 목욕시켜주고 다 한다고 했는데 싫다고 했어 부담이 가니까 다음에 다시 갔는데 미안해서 안 갈려고 했는데 식은 땀은 나지 밥 한 그릇 먹고 (난 밥 한 그릇 못 먹어요 1/4그릇 먹을까 말까요요 밥먹고 아는 사람이라 얘기하고 있는데 아저씨 몸은 어떠세요 하는 거예요 노숙할수록 몸이 안 좋잖아요 손은 다 나셨네요 약은 서울역에서 타서 발라서 넣고 약 발라주면서 추천서 서 주시면서 성가병원 가라고 하더라고 신분증(심철호씨 전화카드 주민등록 있고) 수녀는 해줄려고 하는데 내과 과장 아저씨는 술 냄새가 너무 난리고 사회에 나가면 술을 더 먹게 돼요 그러면 차라리 입원을 시켜주던가 차라리 입원을 시키면 술을 덜 먹을 거 아니에요 이사람이 몸이 아프고 술 냄새 나더라도 입원을 시켜주고 약을 지어주고 낫세 하면은 리어카도 사주고 오빠 동생하면서 몸만 나아라 하더라고

그런데 과장이 이틀동안 술을 안 먹어도 술 냄새가 난데요 아저씨는 몸이 안 좋다고 위장약 영양제 주고 피를 뽑더라고요 피를 뽑으면서 앞에 있어도 술 냄새가난다 이거야 그렇게 하면 안되는거야

5353 쉼터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면 발 냄새도 나조 첫째 나는 남을 생각하는데 계단에서 잘못해서 굴러서 다리에 금이 갔어요 발 냄새 엄청 나요 닦아도 닦아도 소용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좋아라 하겠습니까 차라리 나 혼자 피해 안 주고 자는게 낫지 않느냐 생각해요 여러사람들 사는데 담 냄새 나지 발을 갈라지고 다리 부러지고 옆에 그

런 사람 있으면 선생님은 좋겠습니까 나는 여기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가방에 버너 냄비 가지고 다니며 라면이라도 삶아 먹어요

5618 서울역, 지하도 청파공원 서소문 양정고등학교에서도 자보고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자야겠다 피곤하다면 자요 그래도 남에 집에 가서는 자는게 아니고 왜? 자면 그 사람들 놀란다고요 사무실 계단에서 자면 도둑인 줄 알고 놀라더라고요 사람들 놀래킬 필요 없잖아요 돈이 없어졌다하면 나를 의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불안해요

5815 컴퓨터가도 내 몸에 이상이 있으니까 남에게 피해 줄 수 없잖아요 쓰러지면 끝나는 거지 할수 없는 거지

10041 난 이해를 해

10106 서울역 내은 씨인 CU

서울역 룡 샷

고가밑에서 달려오는 차에서 뻔 서울역 룡샷 ㄴ

00133 종묘공원집회(민주노총집회)

- 0840 서울역집회에서 노숙자 몰카
1841 태극기를 몸에 맨 노숙자ZI
1905 태극기ZO
1941 태극기ZO
1948 노래부르는 노숙자
2040 노숙자 ZO
2109 질문) 아저씨 댁이 어디세요
2111 노래부르는 아저씨
2301 (집에 안 가세요 아저씨) 가야지
(댁이 어디세요)
2306 금호동이야
2311 (집에 태극기는 왜 매신거예요 어디 응원갔다 오신거예요)
2317 원래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2321 (어디 뭐 동대문 운동장에서 야구하신 거 구경하신 거예요)
2327 리틀 야구단이라고 어린이 애들
2336 (집에 이렇게 늦으셨는데 안 들어가셔도 돼요 집에서 기다리시지 않겠어요) 글썽요 (내일이 일요일이니까 직장에 안 나가시겠구나 오늘 출근은 안 하셨나 보죠) 도와주십시오 (요즘 하시는 일은 잘 안 돼시나 보죠 요즘 IMF라서 좀 일하시기 힘드시죠)
2411 이렇게 혼자 술 드시고 카메라 비춰주고 그러니까 좋은데
2426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인쇄니다 인쇄 (충무로쪽에서 일하시나 보조 충무로 쪽에 인쇄하는데 맞던데)
2439 물론 많죠 많은데 다 망가져 가지고 (몸이요?)
2448 (충무로에 있는 인쇄소가 다 망해가지구요) 아저씨가 카메라 비추고 헛튼 소리 하는 거야 충무로의 인쇄소는 있는데 내 다리가 망가진 거예요
2508 다리요 (다리 다치셨어요) 오른 다리요
2516 다리로 PAN(오른쪽 다리 다치셨다구요 어떻게 하시다가 일하시다 다치신 거예요)
2526 얼굴로 PAN (요즘은 일 못하시겠네요 요즘은 그냥 좀 어려우시겠네요 집안이)
(어떻게요 집안이 금호동이라구요)
2550 금호 3가 587번지 (오늘 집에 들어가셔야죠 집에 안 들어가세요 이렇게 밤이 늦었는데)
260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얼른 들어가세요) 술 많이 드신거 같은데
2618 (태극기는 어디서 구하셨어요)
2634 한국 사람이니까 (집에서 가져온 건 아닐 거 아니예요)
2643 한국 사람 태극기 한국사람이 태극기지
2724 내가 망가졌는데
2732 (요즘 일하시기 왜게 힘드시겠네요 힘들지산재 보험 이니 그런 것도 있잖아요)
2744 산재보험도
2755 산재보험도 의료보험도 부익부 빈익빈 알지 부익부 빈익빈
부익부 빈익빈이요
2822 어려운 사람은 그냥 죽는거야
2836 (회사에서 다리 고쳐주고 하지 않아요)
2845 회사에서
2854 다리 PAN (거기를 다치신 거예요)
2908 (일을 전혀 못하시고 계시겠네요)
그렇다구요
2932 감사합니다 기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데 돼지 않기 때문에 화가 많이 났습니다 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3020 (부익부 빈익빈 얘기 좀 더 해주세요)
3029 죄송합니다 부익부 빈익부입니다. 어느 방송이야
3047 (방송국은 아니구요 방송국에 널 건 아니구)
3105 개인적으로
3124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3127 아까 했잖아 부익부 빈익빈
3145 안녕하세요 이렇게 멋진 카메라 갖고 다니는 사람하고
어느 곳에 있더라도 이 사람들에게 나쁜 소리 하지 말고 이쁜 모습으로 살아나가도록 이야기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3246 술과 김치 PAN
3302 슬리퍼PAN
3318 태극기 CU
3328 ZO
3518 (요즘 댁에는 들어가세요)

3601 이제 댁에 들어가셔야죠)
3700 아저씨 CU
3733 (댁에 요즘 잘 안 들어가세요 집예요 잠은 어디서 주무세요) 용산역에서 잔다
3818 잠은 주로 어디서 주무세요
3949 잠은 주로 어디서 주무세요
3959 (출지 않으세요) 출지
4013 (식사는 어떻게)
4023 식사는 동네에서 해주면 먹고 그렇지 않으면 안 먹고
4036 (일하시고 싶지 않으세요) 하고 싶어요 하고 싶다고요
4057 (그전에 어떤 일 하셨다구요) 스크린
4150 (지금 가장 하시고 싶으신게 뭐가 있습니까)
4154 제가요 저는 어린 아이에게 모든 마음을 전다래 주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4225 파란마음 하얀 마음 노래
4249 노래 계속
4356 태극기 노숙자 FS
4410 노숙자 CU 세상은 똑같은거야 우리가 하면은 세상은 망하지 않아
4521 서울역 밤 다가오는 차에서 뻥 서울역

4610 비오는 날 출근을 준비하는 내수형

5819 비오는 날 책읽는 두수형

0000 밤 ###인터뷰

1239 서울역 밤 김현태 인터뷰 올해 7월에 나와서 지금 9월이니까 두달 넘었죠 아주 사람이 있어야죠 막막하죠 막 상 나오니까 일이 있어야죠 구걸 아닌 구걸을 해봤어요 삼일 굶어서 도둑질 안하는 사람 있겠어요 하도 배가 고파서 교회에 가서 가니까 교회에 가면 얼마주고 얼마 준다고 해서 단돈 몇 천원이라도 나오더라고요 내일이 일요일이니까 또 해야 되겠어요

1403 구걸 말고 다른 일이 있어야죠 재벌들이 착취해서 일용직도 일 없어요 머슴사는 식으로 들어가서 아침 하루하루 자고 아침되면 다 쫓아내고 그런다고 해서 안 들어가요 오류동에 있는 부산파이프에서 일하닥 4개월전 6월달에 찢렸어요 출근이 부진하다고 찢렸는데 퇴직금을 받으러 가니까 당신이 퇴직금 받을 게 있느냐고 그래 일한건 퇴직금줘야 할 거 아니냐 4개월로 나눠서 한달에 80만원씩 4개월로 나눠서 한달에 80만원씩 4번을 탔어요 그거 받아서 집에 넣어주니까 애들 용돈밖에 안되죠 학비가 안돼죠 차라리 내가 나오는게 속 편하겠다고 해서 나온 겁니다. 두달전이니까 7월 4일인가 5일날 나왔어요 7월 4일 나왔어요 잠은 항상 신문지나 박스나 깔고 자는 거죠 출조 추운데 어떻합니까 그러니까 교회가니까 이런 잠바 하나씩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불 삼아 덮고 자는 거요 겨울 옷을 집은 금호동이고 학교는 성동공고 나왔어요 좋은 기술 놔두고 너무 비참합니다 하루 걸근하면 잘라버리고 지내들이 뭔데 가져없이 잘라버리니까 우리나라에는 지금 실직자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요 추석때 집에 못들어갑니다 들어갈 능력이 없어요 단돈 기십만원이라도 가지고 들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과일 바구니라도 들고 들어가야 하는데 당장 목구멍에 풀칠하기 힘들고 누가 돈 십원 안주면 밥 굶어요 정말 비참하고 너무 많이 힘들고 복지관이니 뭐니 들어가면 인간 대우를 안 해 줘요 개 취급 당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새끼 저 새끼는 보통이구요 땀땀하게 밥 한끼 굶고 났는데 살지 내가 왜 그 좁은데 들어가서 남들에게 욕을 먹어야 합니까 나는 그런 짓은 안해요 들어가지도 않고요 신발도 남이 준거예요 심철호 그분이 ID 카드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목욕하고 씻고 하는데는 혜택을 봐요

2008 ID카드 이게 있으면 목욕하고 밥 먹는데 혜택을 보더라고요 저는 47입니다. 1952년 2월 25일입니다 저는 김현태입니다. 오늘 용산가니까 옷도 나눠주고 닭고기도 주고 떡도 주고 많이 줬어요 전도사님이 2천명을 모아 놓고 실직자들에게 잠바를 나눠줬어요 그 양반이 복받을 분이에요 여자 전도사님이에요 먹지 말라는 술을 교회는 굴 담배 하는걸 제일 싫어하지만 당장 내가 먹고 살려먹는 배도 고프고 출출하니까 술 먹던 사람이 술 안 먹으면 병들어 죽어요

2215 추석이 다가오는데 친구들 몇이 거지가 되면 완전 거지가 되고 신사가 될려면 완전 신사가 되라고 나는 작정하고 완전 거지가 될려고 그래

2250 가정은 내가 없으면 생활 보호 대상자가 되겠죠 나이가 50이 다되가니까 애들이 아직 어려요 우리처가 풍을 맞았으니까 생활 보호 대상자를 만드는 때에 내가 집을 나왔거든요 그때 실직한거죠

2356 한숨 이 동네 있으니까 시계를 훔쳐가지 않나 심지어는 주민등록까지 훔쳐갑니다. 참 무서운 동네입니다 이제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어 버렸어요 이 동제는 지면 안되니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겨야 돼요 본인 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싸워야 하고 안 그러면 누굴 어떻게든지 깔아 뭉개야 하는 곳이 이 동네예요

2523 아람이네 아침

2819 천막안

2857 아침에 아람이 머리 매주기 아침에 바빠가지고 못 갔어요 사는 모습 그릇 아람이와 동생(재진이)

3852 라면 끓이기 밥 먹기

5707 재진이 학교 가기 준비

5827 아람이 학교가기 준비

5921 학교가기 위해 나서기 가재역에 놀이방겸 애들 시당 일하기는 편하다 아이들은 잘 논다 선생님과 친구들과 천하다 겨울 되기 전에 나가야 하는데 맘 대로 되지 않는다 애들이 있다보니까 집 연기가 힘들어요 방이 제일 걱정이예요 출고 그러니까 새벽에 애들이 웅크리고 자고 그제 제일 걱정이예요

뒷모습

TAPE 11 **신한국당 집회 비오는 추석연휴 서울역을 거니는 김기태, 김현태 등장, 김광모 등장**
서울역 대합실을 거니는 김현태(잠자리,인력중)

0010 비오는 추석연휴 서울역을 거니는 김기태 아침에 빵먹고 2시에 서울역에서 밥 먹는다고 해서 같이 있던 형님은 고향 광주에 가서 올라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올라 왔네 나는 아직 내려갈 못 돼서 돈도 없고 해서
 0218 나는 내가 빨리 TV에 나와서 형제들이 내 생활하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 서럽다 서러워 밤에 잠을 못잔다니까 눈물이 나와서 우리 형제들은 다 잘 살아 나 혼자만 이렇게
 0318 점심은 용산에 가서 먹어야지
 0414 비오는 거리로 나간다
 0450 소주사러 가는 김기태
 0532 포도산다
 0706 소주마시기 포도와
 0826 비가 안오면 이거 짧고 잔다고 비가 오니까 지하도로 내려가야지 시끄러워서 잠 못자지 잠도 안와요 그냥 잠깐 누워있는거지 날새때까지 기다리고 오늘에는 새벽 2시반에 일어나서 왔다갔다하다가 빵사러 6시면 캄캄하지 잠은 늦게 자지 10시 넘어야지 자지
 1033 담배피우고
 1145 이동봉사단에서 사진 찍고 카드 만들어내면 신발도 주고 남방도 주고 그런다고 차에 사람들 전부 신발타고 옷다고 해요
 1222 추석대도 여기 있어야지 못 내려가요 빈손으로 내려가면 뭐해요
 1318 내려가면 형제들한테 폐끼치고 나 혼자 희생하면 돼지 명절이 싫어 명절이 다가오면 어디가 숨어있을려고 식구들하고 화합이 안되니까
김현태 등장) 그 술 안 먹어 전 진로밖에 안 먹었 그 술 안 먹어요 속에서 안 받아요 상담 좀 할려고
1611 김광모 등장 인터뷰) 마음이 답답합니다 가진 것 없고 돈도 없고 일거리 없고 물에 빠져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애 가진 사람은 안 내 놓고 없는 사람은 뭐냐 이거야 풀이지 밥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억울하나 내가 신발하나 얻으러 왔어요 내가 도둑질 한번 안 해 봤어요
 1914 김현태 소주들과 합석
 1940 술권하며 희망이 있어야조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2139 국가에서 분산시키려고 그래요 당연히 왜냐면 큰일을 터뜨릴 까봐 분산시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됐는데요 공무원이 나보고 뭐하러 왔애 오래 있으면 망가지니까 빨리 가라는 거야
 2312 안 모일래야 안 모일 수가 없어 뭉쳐야지 그런데 절대 안 뭉쳐서 학생들 데모 하는거 더 무서울거야 갔다가 오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올 사람이 많이 있다고 내일 모래 명절인데 인간전쟁이라고 오갈데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돼 잘 사람은 가고 남아 있는 사람은 남아있고(구호소리)
 2507 누군가 와서 인사한다
 2713 현대씨 가고
 2733 신발 바꿔 신기
 2828 서울역 스케치
 283 기태씨 빵 먹고 술 마시고

3043 서울역 대합실을 거니는 김현태

서울역→서부역쪽으로 일자리가 문제지 다른건 문제가 하나도 아니야
 3421 밤에 자는 잠자리 3시 30분이면 일어나서 남대문 경찰서에서 집결 용역회사 버스가 그리로 온다 1시간 걸리는 (한신인력 개발)거리에서 일한다
 3736 쿼김 1천원 어치 사고
 3920 소주사고
 4006 현대씨) 술마시고 용역회사에서 쫓겨나도 괜찮아요 사흘만 안 나오면 잘려요 그만큼 해줬으면 된거지 안 나갔려다가 안면이 있으니까 나가는 거야 작업 반장하고 안면이 있어서 나가는 거지 아니면 미쳤다고 나가 3만 3천원 3만 5천원 받아서 전화통화가 dhoTsmsep 일이 영종도래요 추석세고 그 때 사원 모집할 때 들어오라는 거야 영종도 모래 푸는데야 사무직으로 일 할 수 있겠어요 하는 거야 술 먹으면 손 떨린단 말이야
 4336 현대씨와 다른 2명이 앉아서
 4513 나 아무것도 안 먹었어 나 일요일부터 밥 안 먹었어 쪽 팔리게 나 밥먹게 월원만 주슈 이천원만 주슈 그 소리 못해 내가 어저께 일 나가서 3만 3천원 벌어서 2천원 보태서 사구 그렇다고 용산이나 청량리나 노량진에 밥 먹으러 가기 싫더라구 밥 먹으러 가는거 너무 싫어 개발 벽으로 가느니 안가 밥먹으러 가는거 너무 싫어 개발 먹으러 가느니 안가 밥 먹는데 어디야 현대 백화점(밥 먹는 곳 위치 설명)
 4852 니가 나를 완전 거지를 만들어 일 갔다 늦게 오니까 자리를 뺏겨거든 자는데 어지나 추운지 혼났어 어저께 감기 걸렸단 말이야 마비 같은 건 없는데 감기 걸려서 어저께 고생했어 용산 전자 상가 따뜻하잖아 아냐 얼마나 추운데 동생중에 경마하는 놈이 있어 가지고 난 노름하는거 굉장히 싫어해 노름할 돈 있으면 술 먹고 밥 먹어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일하지 집도 절도 없고 오늘 저녁에 술 먹지 말고 한신가자 3만 천원부터야 거지가 되면 1안전 거지가 되고 신사가 될려면 신사가 되고
 5734 추석때는 집에 안 내려가요 집안에 사정이 있어서요 전두환이고 노태우고 김대중씨구 간에 모든게 부정부패야 지내끼리 다 해먹은 거고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 해준거 있어 하다 못해 세수비누, 빨래비누라도 얻어쓴거있어? 전두환 때문에 내가 삼청교육대 8기에 갔다왔어 비올 때 동여리가 뜨끈뜨끈해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저는 얼마나 맛났는지 알아요 내가 삼청교육대 8기요 내몸이 꿀병이 났어요 가슴에 흉터가 있어요 절대 남들과 싸운일도 없구요

TAPE 12

추석의 김창균 인터뷰

비 오는 날 복길형 인터뷰

비 오는 날 김광모 인터뷰(양각) 인터뷰하면서 몰카

추석연휴 서울역 안을 배회하는 김광모

비내리는 서울역 밖 스케치

비내리는 서울역 입구 몰카

간질병노숙자 인터뷰

추석의 김창균 인터뷰(42세)

0011

0038 여기서 자는 겁니다 저는 요리사인데 일거리가 너무 싸게 나서 그렇니다 할려고 하면 월급이 너무 싸게 돼서 일을 여기서 하게 됐습니다 나도 동생이 대학다니고 그런지만 뭐라고 얘기는 않고 요리합니다 우동 뽑았어요

0548 일자리는 있었는데 월급이 작아서 못 가요 IMF 때문에 작년에는 300만원 이상 받았는데 지금은 180만원 작아서 안 가는 거야 내 정신 상태가 틀린 거예요 내 입장이 내가 나쁜 놈이요 작년에 300만원 받았으니까 길거리에 이런 거 보다는 나한테 그런데 아이고 한다고요 일자리는 많이 납니다, 안가서 글래요 노가다도 많이 하는데 안 갑니다 술먹고 밥 주는 데가 많으니까 밥 주는데가 많은데 뭐하러 일가 밥주는데가 많은데, 4시가 되면 일할 사람하고 깨우는데 안가요 허리 다쳐 가지고 노숙하다 의자에서 떨어져서 허리를 다쳤어요 안간단니까요 밥주니까 그러니까 안 간다고 밥주는데가 얼마나 많은데 어마어마해요 84군데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가요

0912 밥주는데는 남대문...에서 주고 낮에는 밥 주는데가 없는데 배들래했 천주교에서 200원 재고 밥을 먹어 어디가고 저기가고 영구네 집도 있거 일을 왜 하기 싫어요 일자리도 안 나오는데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자신 잘못이라 누구 원망은 하지 않습니다 일자리도 많이 나와요 새벽 4-5 시면 여기잡시다 하고 여기서 깨우고 그래요 전부다 자고 있다가 안갈려고 그래요 저는 정부 원망 안해요 왜 돈이 적더라고 적으면 적은 대로 가야지

1204 이렇게 해서 어딜 가겠어 전라남도 해남이지만 부모님이 왜 안보고 싶소

1232 왜 우리 집을 안 가고 싶냐고 엄마보고 아버지도 산소 성묘하고 왜 안가고 싶어요 왜 왜 아버님한테 술 한잔 따르고 그러고 싶지 남들 명절이라 간다는데 왜 안가고 싶어

1329 눈물 닦는 장면

1352 아버지 죄송합니다 올해도 못갔습니다. 내년엔 꼭 갈게요 용서를 빕니다. 아버지 노하지 마세요 아버지에게 달려갈 것어요

1554 담배놓고 절한다.

1640 고개 파묻고 운다

16 46 돈이 없어서 집을 못 갖어 부모님 막걸리 한잔 못 따라 드리고 아버님 조카 용돈도 쥐야되고 텔레비전에 나와도 좋아요

2030 일을 못해서가 아니고 정신을 못차렸지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고

2206 담배 CU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창균형

1611 비오는 날 복길형 인터뷰

1741 김현태 인터뷰

1806 비오는 날 김광모 인터뷰 (양각)

2620 그 사람도 연예인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좋은 일 한다 어떻게 보면 장사하는 거지만 없는 사람들 도와주니까 걸으로는 욕을 하지만 마음 속으로는 욕을 안 합니다. 실직자는 집에도 못 있고 가방하나 들고 왔다 갔다 그러다보면 오갈데가 어딴지 오갈데가 없으니까 사람 환장하는 거지 회사간다고 가방 갖고 나와서 공원이냐 지하도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새벽 세시에 일어나면 배에서는 쪼로록 소리나지 아침 못 먹었어 잠 잘자다가 죽으면 난 다 작고 다닙니다 지장 찍어보면 다 나오겠지만 주민등록 난 다 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내가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일자리는 없지 배운 것도 없고 대학을 나오고 해도 할 일이 없는데 나는 집이 여긴데 왜 안들어가냐 왜 나왔냐면 방을 잡았는데 방세가 밀렸는데 안가요 자존심을 세워서가 아니라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 악한 사람은 없어요 악하면 사시미칼 들고 털고 그랬지 왜 이려고 있겠습니까 도둑질을 했던가 강도질을 했던가 없는 사람을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악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밥 한그릇 얻어먹어도 누가한테서 밥 한 그릇 얻어먹어도 친구면 친구 선배면 선배 밥 한 그릇 얻어먹는게 낫지 이런거 하고 없으면 내가 굶는거지 주머니 뒤통지 보니까 친구가 밥이나 먹었나 하면서 돈 만원 주더라고 동생뻘이니까 안 받으려고 했는데 이거 가지고 며칠 살았어요 차를 잘 안타요 차비 500원밖에 얹 하지만 성가병원 친할권도 다 있어요 용산가면 200원짜리 밥이 있어요 버스를 타고 갔데요 버스비 500원 오는데 500원 1200원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공기밥 사서 먹을 수 있어요 비가 오니까 어디 먹을 때도 없잖아요 밥은 내가 점심 딱 한끼 먹습니다. 내가 먹어봤자 1/4밖에 못 먹습니다 왜? 내 속에서 안 받으니까 남들은 두그릇 세그릇 먹는다는데 내 목에 안 넘어가지만 물에 말아서 먹어요 속이 쓰리니까 표현은 못하지만 어떤 때는 확 거시기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내 몸은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뜻대로 안되더라고

3603 소주 마시고 빼주고 한두번 빼줘야지 그것도 완전히 빠진 돼버리고 마약 나는 개네들을 마약에 중독되었지만 남자분이고

2757 인터뷰하면서 몰카

2922 추석연휴 서울역 안을 배회하는 김광모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돌아다니고

4228 시골 귀향길 갈려고 그러지 차비 없어 못 갑니다 차비 있으면 갈 마음도 있지만 보고 싶지 마음고 없어요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가면 뭐할거 형님 찾아가서 뭐 할거야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런 꼬로는 못가요 왜 나도 몇 몇하게 마이라도 입고 선물도 사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난 안가요

3631 보고 또 보고

3642 비내리는 서울역 밖 스케치

3722 서울역 입구 몰카

5034 간질병노숙자 인터뷰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 인데 회망에 집 원하는 데 가라고 하더라고요 서울역에서 갈 수 있는 곳이 남가좌동 서대문 영등포 세군데 중 한 군데로 가라고 했어요 영등포를 해 봤어요 서울역 시계 탑 앞에 차가 온다고 오후 7시에 온다

고 7시까지 오라고 하더라고요 5시에 서소문에서 밥 먹고서 그 때부터 시계탑 앞에서 기다리기 시작했는데 7시까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차가 안 오길래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복지관에서 오는 차가 두 대가 있더라고요 빨간차하고 파란색 1대 두 대가 있길래 만 사람들에게 (복지관 사람들) 물어보니까 영등포 가는 차라고 그차를 타라고 그러더라고요 멋도 모르고 영등포 가는 차인지 알고 타고 갔더니 그 차가 영등포 가는 차가 아니라 서대문 가는 거예요 서대문 잘 못 가가지고 빠꾸 당했어요 빠꾸 당해서 다시 다음날 영등포 가기로 하고 용산역에서 상담을 했기 때문에 다시 용산역으로 갔다구 상담하는 아가씨가 영등포에서 오는 차는 6시에 온다고 해서 콘테이너 뒤에 복지관차 파란색 차가 와 있길래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래서 그 차 맞다고 해서 그 차를 타고 갔는데 영등포 가서 재 상담을 하니까 상담하는 아저씨가 저 보고 자기가 잘 안다고 일자리를 한 군데 소개시켜 준다고 하더라고요

TAPE 13

비오는 날 간질병노숙자 인터뷰 계속 막내 인터뷰
 비,밤에 대우빌딩 서울역 스케치 서울역 지하보도에서 부부 노숙자
 비오는날 염천교 입구 스케치 지하도에서 막내와의 장난
 서울역 지하도의 카메라를 든 노숙자 - 스케치OK
 염천교에서 두수형 인터뷰 국군의날 아침을 여는 집 배식

0000 간질병노숙자 인터뷰 계속 방 훗수하고 장롱 번호하고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가지고 가서 말 해줄려고 가니까 제가 또 원래 술을 못 마셔요 술 냄새만 맡아도 골이 아픈 사람인데요 내려가서 상담하는데 가니 까 어떤 놈하고 상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담원하고 있길래 상담하는 아저씨한테 방 훗수하고 장롱번호하고 가르쳐 주니까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와 가지고 어이 하면서 툭툭 치더라구요 왜 그러냐니까 저보고 상담하고 있으니까 방 해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방 훗수하고 방 장롱 번호만 알려주려고 한다고 하니까 대뜸 이런 사람은 회 망의 집에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보고 당장가라고 하는 거예요 술도 못 마시는 사람 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술 마시고 돌아 다니는 사람은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쫓아보내라는 거예요 열이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더럽고 치 사해서 있어 달라고 사정사정을 해도 안 있겠다고 문 앞에 세사람이 지켜서 있는데 이 사람을 여기서 당장에 업어 치기 되치기 해서 두들겨 패 죽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처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인 머슴 다루듯이 하는 것 아니예요 그 소리 듣고 열 받아가지고 나 당장 나가겠다고 여기있어 달라고 해도 못 있겠다고 그 날로 나왔어요 남 의 집 식당 앞에 어저께도 비가 더 심하게 왔거든요 나쁘이 집 식당 문 앞에서 비를 흠뻑 맞으면서 잠을 잤어요 술 은 전혀 안해요 혀가 좀 짧아서 말을 더듬는 거죠 헛바늘이 돛아서 말하기도 애매하다구요 서울역에서 계속 생활했 어요 91 년부터 지금까지 7년째예요 그전에는 남대문에서 서비스업에 과장직으로 있었죠 일하던 직장이 문을 닫아 서 서울역에 와서 이때까지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친척은 저희 고모님 작은 아버님 외삼촌 서울지역에 친척이 최고 많죠 친척을 만나고 싶은 생각은 굴뚝 같지만 만만 형편이 안돼서 만나지를 못하고 있는거죠 친척집에 가면 여태껏 장가도 안 갔나면서 당장에 장가가라는 말만해서 잔소리가 돼가지고 그런 잔소리는 듣기도 싫어요 부모님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장가를 가야 하는데 장가를 빈손으로 갈 수 없는 거잖아요 돈이 있어야 장가를 가든지 말든지 할텐데 돈이 없으니까 여태까지 장가를 못 가는 거죠 몸이 맘 같이 잘 돌면 모르는데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병을 유 전하고 돌아가셔서 맘대로 몸을 쓰지 못한다고요 유전받기를 간질이라는 병을 유전 받았어요 그 병만 없으면 노가 다라도 할 텐데 간질병은 노가다 하기가 힘들다고요 노가다 일을 할래도 병이 빨리 나아야 되는데 병을 고칠려면 뇌 수술을 해야 하는데 뇌수술을 할려면 3천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서 병을 고치지를 못하 고 있는 거예요 돈이 있다면 부모님을 위해서 빨리 장가를 가고 부모님을 모시고 구멍가게라도 하고 싶은 심정예요 앞으로 구멍가게라도 차린다면 부모님들 모시고 살아야죠 구멍가게 할래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라고요 노 숙하면서 돈 벌지도 못하고

0952 막내 인터뷰

1212 비,밤에 대우빌딩, 서울역 스케치
 1613 서울역 지하보도에서 부부 노숙자
 1705 비오는날 염천교 입구 스케치
 1758 지하도에서 막내와의 장난
 1830 서울역 지하도의 카메라를 든 노숙자 - 스케치OK

1950 염천교에서 두수형 인터뷰

2009 직장 찾아가다구요 농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갈려구요 고향에 있는 부모님들 만나야죠 외롭고 괴로울 때 같이 했던 사람들 만나야 돼 사회에서 나를 왜 내몰았는지 모르겠다구 내 자신을 우리사회에서 나를 내몰았는가 나도 단
답해요 진짜.

일할려고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나 엄마 보고 싶어 나 엄마 일찍 여위었어 나 홀트 출신이야 148 홀트아동복지회 출
신이야 고아야 고아 홀트 148하면 다 알아 결혼했어 아이들 보고 싶어 보고 싶어도 못들어가 갈 수가 없는걸 애들
보기가 부끄러워서 갈 수가 없어 왜 또 나처럼 만들까봐 싫어 내가 애들 그렇게 나처럼 만들기 싫어 또 이렇
게 될까봐 나애들 보러 갈려고 노력하고 있어 밑에 동생들도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내가 살고 싶어 내 자신이 내
자식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 모르겠어 무작정 내려갈지 어떻게 살지 나를 찾고 싶어 내가 뭐가 하고 나는 내가
뭔지 모르겠어 내가 앉아 있었거든 나를 찾고 싶어서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나는 가슴이 아파 도와줘서 고
맙다구 진짜 내가 할 말이 없어 종필아 고맙다 여태까지 잘해 왔어 형 손 따뜻해 아직 내손 잡을 만해

3509 김형권 인터뷰

3634 쉼터 ID 접수증

4144 염천교로 들어가는 두수형

4230 국군의날 행사 서울역 스케치

4517 아침을 여는 집 배식

5046 이주원간사 인터뷰 현실적으로 500명 가까이 무료 급식을 해줄려니까 제대로 된 밥을 해줄 수 없어요 제대로 된 밥을 해줄려면 100명씩 나눠서 알차게 해줘야 되는데 500명씩 해주면 해주는 사람도 힘들고 먹으러 오시는 분들도 참 어떻게 보면 개밥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수도 있는 거죠 먹는 곳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필 질문)한가
지 애들 듣다보면 보현의 집이라고 노숙자들 쉼터를 만들라고 조계종에서 낙원동에다 전물을 얻었는데 지역 주민들
이 왜게 많이 반대를 했어요 쉼터도 반대를 하는데 노숙자 무료 급식소가 들어가면 쉼터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이용
을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안 할가 이걸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지 않을까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이유는 노숙자를 범죄자로 보는 인식이 너무 많아요 노숙자는 범죄자가 아니라 오히려 범죄를 당할 수 있
는 약자들인데 노숙자들이 소외받고 실제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달리 해주

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5259 노숙자들은 사회에서 약자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들이 사회에 더불어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예요 그런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볼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5328 밥 먹는 모습, 배식하는 모습

5820 술 먹은 사람과 실람이 다른 사람들 표 받고 먹는데 내가 아까 한번 넣어줬으면 됐잖아 표 안받고 술 먹으면
원체 밥을 못 먹어 여기서 기다리며 들여보내 준 다잖아 표 없으면 기다리면 되잖아 술 먹으면 말이 통해야지

10138 계속 밥만 받아가면 어떡할거야 밥도 안 먹고 어디다 갖다 주는지도 모르고 세 번째 밥만 받아가서

TAPE 14

배식 계속 엄복길 인터뷰 김기태 서소문 공원→서울역가기
김기태 서울역 밤 탭댄스 지하보도 캠페폭력 인터뷰
염천교 두수형이 떠난 후 추석 낮 서울역 스케치
낮 김기태(포지) 인터뷰 DIC부족

0000 배식 계속

0108 엄복길 인터뷰 6시, 7시 다 찢어지고 뜯어져서 버렸지 중계동 희망의 집으로 간다고 했는데 덕수형은 고향으로 가고 두수형은 염천교에서 생활하고 내가 텐트도 팔아 버리고 여기도 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안 온다고 했어요 나는 방을 얻어서 들어갈려고 지금부터 4일부터 천천히 준비하고 있어 고향 후배가 하나 있어서 같이 갈려고 아직 연락은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 추석 세고 서울에서 만나게 되면 만날 수도 있고 내수는 연락도 안되고 전화도 없고 되고 오지도 않고 4일날 기다려 보겠다고 온다고 생각하고

0249 같이 있던 일행이 헤어졌기 때문에 혼자 있기가 그래서 계속 여기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죠 쉼터에 들어갈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내 직종이 전기기 때문에 그 직종에 일을 찾아 보는데 연락이 없고 연락 올때까지 노가다라도 해야죠 잡일이라도 해야죠

재밌었고 즐거웠고 보람있게 살았죠 그렇지만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못 거둔 것이 아쉽죠 당연히 유종의 미를 못 거뒀죠 같이 만나서 가는데 각자 갈길로 가면서 인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가버리고 사람이 없을 때 떠나니까 유종의 미가 없는거죠 집이라면 한방에 있으면서 한 술밥을 먹으면서 마지막 가는 길에도 인사를 하고 다음에 만나자고 아쉬움도 남기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6개월 길다면 7개월까지 있었는데 하루 아침에 무너졌다고 생각해요 가족이 흩어진 것 같아

0616 텐트안

0656 지금까지 여기서 생활하면서 말 다툼 한적 있었지만 한번도 티격태격 한 적 없고 이해하면서 친 동생같이 친형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거예요 정을 못 떼서 다른 것은 없고 내수형 오면 모든 것을 다 얘기하고 헤어져도 다음에 여기서 만나자는 약속도 하고 이별을 그렇게 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내수 왔을 때 모든 것을 내수도 나에게 이야기 하고 차마 눈물이 날지도 몰라 내수랑 헤어질려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0803 김기태 서소문 공원→서울역가기 서울역 가야죠 거기 않아 있다가 텔레비나 보고 5원짜리 가질래

1145 김기태 서울역 밤 탭댄스

1345 청량리 역전이나 왔다갔다하면서 시간이 안 맞아서 그렇지 서울역에서 아는 사람이 있어 차비가지고 통장하다 지하도가면 도장 3천원 주면 파주거든 나무도장도 파주고 그런 사람인데 새파랗게 젊은 놈도 우리 앞에서 담배 빼꼼빼꼼 피우는데 내가 말할 수 있나 만약에 텔레비전에 나오면 어휴 저놈의 새끼 그걸 어떻게 감당해 감당할 능력이 없어 나는 내가요 사살 청량리에서 노가다 일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용역에 일하고 다니던 사람인데 일하면 재 때 줘야하는 임금을 보통동안 한번도 못 받았어 고발할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 내일 DKCADL 추석인데 나도 일가친척 있는데 과일이라도 사가야 되는데 그런 돈도 없어서 여기 나와서 술을 먹고 있는거요

1936 9월 18일부터 이리고 있었어 청량리역에 용역회사 효성인테리어 노가다꾼들 집합장소라 사람은 10여명정도 내가 거기 나가면 일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돈이 안나와

2300 나는 병원에 입원한거밖에 없어 나는 13일인가 14일 빠졌어 회사에서 산재에서 나오고 받으면 뭐해 2달만에 다 깨지던데 나도 대구에서 오래 살았지만

2518셋이서

2532 이런저런 님두리 500만원 안 주 배제고은학교 나왔어 해병은 92기야 배제학당

3044 김기태 탭 댄스

지하보도 캠페폭력 인터뷰

3207 한이 많아 한이 많아

3318 작년 11월 달부터 목수 생활하다가 원래 전과가 15범이 넘는데 여기와서 노숙한지 작년 11월말부터 와서 노숙을 했는데 이 새끼들 한테 전부 두들겨 맞아 가지고 암만 얻어먹고 그러지만 불쌍한 사람들을 왜 두드려 패고 그리느냐 불쌍한 사람들을

3420 젊은 놈들이 너무 두드려패니까 내가 지금 분이 안 풀려서 말을 못하겠어 나는 너무 두드려 맞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3553염천교 두수형이 떠난 후

두수형 내려갔다니까 시골로 내려갔다니까 안와

4018 추석 낮 서울역 스케치의 낮[나오는 곳] PAN→F.S

4052 F.S PAN→

4113 고향가는 길 버스 PAN→

4130 "

4141 서울역 인파 F.S PAN←

4206 "

4218 서울역 시계탑 TD

4232 "

4246 "

4253 "

4305 에스컬레이터 TU, FS